

Educational Exchange & Cooperation Program Between Korea and the Philippines
Partner Schools Visitor's

필리핀 학습여행 가이드



July 19-25, 2011/The Philippines

Personal Memo	
School	
Grade/Class	
Passport No	
Name	

Yeosugubong Middle School & Chungdeok Middle School in Korea

Online Education Forum

<http://ictmsn.org>

Educational Exchange & Cooperation Program Between Korea and the
Philippines Partner Schools Visitor's

필리핀 학습여행 가이드

국제교류협력캠프에 참가하는 학생들과 교사들의
학습하는 여행, 2012여수 세계박람회를 홍보하는 여행을 위해
여수구봉중학교와 충덕중학교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교육연구회 황하선이 편집하여 2011년 7월 15일 한정본으로
삼일문화사에서 인쇄하여 발간하다.

차 례

-국제공항을 나서는 순간, 나는 민간외교사절이 된다-

여행목적/기간/지역/숙소	05
방문인원	06
방문 주요일정	08
여행 준비물/ 필리핀 여행시 지킬 예절	10
숙소에서/ 식사예절	12
동양의 진주, 필리핀을 공부하자	13
(개요, 역사, 음식, 축제, 민족, 종교, 교회)	
여행자를 위한 메모	23
매트로 마닐라 지도	29
일정별 주요 행선지 안내	30
제 1일	30
제 2일	40
제 3일	43
제 4일	52
제 5일	55
제 6일	59
제 7일	63
호세 리잘	66
You Raise Me Up	78
따갈로그어 한 마디	79
여행을 마치고	80
Sketch & Sketch	82
여행기와 사진콘테스트	84
초청장 사본	85
Anak - Freddie Aguilar	88
간단히 소개하는 여수와 2012 여수 세계박람회	91

■ 여행 목적

국제교류 협력학교 방문 교류를 통하여 국제적 감각을 익히고 교류 국가의 교육, 전통민속, 문화 및 역사 등의 체험을 통하여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한다.

■ 여행 기간:

2011. 7.19(화)~7.25(월)(6박7일)

■ 방문지역:

필리핀 매트로 마닐라 퀘존시 외

■ 숙소: Grand Opera Hotel in Metro Manila , the Philippines

925 Doroteo Jose Street corner Rizal Avenue

TEL + 63-2-3140090

<http://www.manilagrandopera.com/>

■ 전체 총괄 교사 휴대전화

010 5652 5628 황하선

■ 방문 인원 및 조직: 총 참가 인원 53명

*단장(학교장): 김정옥(구봉중), 김복권(충덕중)

*총괄,진행: 황하선(여수구봉중)

*학생지도: 장민정(충덕중), 김행미(구봉중)

*행정: 현경의(충덕중)

[여수구봉중학교]

1	1	임준섭	JUNSUB LIM	M
2		주명관	MYEONGGWAN JOO	M
3		김훈	HUN KIM	M
4		윤한결	HANGYEOL YOON	M
5		홍의선	EUISUN HONG	M
6		김태현	TAEHYEON KIM	M
7		정승록	SEUNGROK JEONG	M
8	2	고주용	JOOYONG KOH	M
9		조하늘	HANEUL JO	M
10		김동완	DONGWAN KIM	M
11		이예찬	YECHAN LEE	M
12		김민표	MINPYO KIM	M
13		한상민	SANGMIN HAN	M
14		백성호	SEONGHO BAEK	M
15	3	이지원	JIWON LEE	M
16		조하늘	HANEUL CHO	M
17		강경운	GYEONGUN KANG	M
18		권용재	YONGJAE KWON	M
19		오민철	MINCHEOL OH	M
20		정찬	CHAN JUNG	M
21		주홍관	HONGGWAN JU	M
22		김상준	SANGJUN KIM	M
23		김학수	HAKSU KIM	M
24		김진수	JINSU KIM	M
25		조윤수	YUNSU CHO	M
26	principal	김정옥	JEONG OK KIM	M
27	leader	황하선	HASEON HWANG	M
28	teacher	김행미	HAENGMI KIM	F

[충덕중학교]

1	1	김대길	KIM DAE GIL	M
2		김성환	KIM SEONG HWAN	M
3		명우현	MYEONG U HYEON	M
4		박정태	PARK JEONG TAE	M
5	2	강대현	KANG DAE HYEON	M
6		김승재	Kim Seung Jae	M
7		김은규	KIM EUN KYU	M
8		강병수	KANG BYUNG SU	M
9		명도현	MYEONG DO HYEON	M
10		손규준	SON GYU JOON	M
11	3	신준우	SHIN JUN U	M
12		박종수	PARK JONG SU	M
13		박세훈	PARK SE HOON	M
14		김동훈	KIM DONG HUN	M
15		강대진	KANG DAE JIN	M
16		이승용	LEE SEUNG YONG	M
17		유민철	YOO MIN CHEOL	M
18		김상진	KIM SANG JIN	M
19		김현우	KIM HYEON U	M
20		강병선	KANG BYEONG SEON	M
21		이준혁	LEE JUN HYEOK	M
22		김준영	KIM JUN YEONG	M
23	principal	김복권	KIM BOCK KWON	M
24	teacher	장민정	JANG MIN JEONG	F
25	officer	현경희	HYEON GYEONG HUI	F

■ 방문 주요 일정(Itinerary to visit the Philippines)

July 19(1stDay)

21:05 depart from Busan Int'l Airport (South Korea) by PR417

23:50 (Local time) arrive in Manila(NAIA)

(move to Hotel in Manila)

July 20(2ndDay)

>Breakfast

visiting partner school , NovalichesHighSchool

*Greeting ceremony

*Discuss cooperative projects

*Joint Class (Students of GBMS_CMS & NHS (Learning together))

-Mr. Hwang: Assemble Electronic Kit

-a teacher of GBMS and a teacher of NHS: English lesson

* Conference for ICT teachers

>Lunch

*Culture Exchange: Teach and Learn culture each other.

*Friendly sports games:

>Dinner @ Hotel

*Invite Dr. Moncada , Dr. Perlado and teachers

July 21(3rdDay)

Visit DepED

Visit the Quezon City hall

Visit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Visit Malacanang palace

July 22 (4thDay)

Visiting Ramon Magsaysay Cubao High School

*Greeting ceremony

*Joint classes: Science & Technology(Haseon Hwang)

Classroom Meeting of Students and Teachers in English, Science, and Math

>Break

>Lunch
Farewell

Back to Hotel

July 23 (5thDay)

>Breakfast

[Filipino Nature Adventure 1]

Lost Eden

>Lunch

International volunteer activity

Back to Hotel

>Dinner

July 24(6thDay)

>Breakfast

[Filipino Nature Adventure 2]

Villa Esquero

>Lunch

Back to Hotel

July 25(7thDay)

[Filipino Heritage Adventure]

Rizal park, Fort Santiago, Manila Big church etc

>*Lunch*

>Dinner

* move to NAIA

15:25 Depart from Manila by PR416

21:05(Local time) Arrive Busan Int'l Airport (South Korea)

■ 여행 준비물

배우겠다는 겸손한 자세, 교복(공식 행사 참석시 착용), 간소복(평상시 착용), 약간의 용돈(USD로 환전-가급적 1\$, 5\$, 10\$등으로, 우리나라 돈 1000원짜리가 쓰이는 곳도 있다), 필기구, 가이드 북, 전자사전(있으면 지참), 세면도구, 긴 소매옷(냉방이 잘 되어 있다), 짧은 바지, 수영복, 스케치북, 개인 상용약품, 필리핀 친구에게 줄 선물 3개 정도(기념이 될만한 것으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준비), 기타 개인용품, 디카 등

*단, 담배, 주류를 비롯한 미성연자 이용 불가 제품은 지참 금지,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은 카트에 넣어 화물로 부칠 것

○ 객실 휴대반입통제물품 23 중

- 액체류 : 7개종 (물 및 드링크류, 스프류, 소스류, 소스/액체류음식류, 로션류, 오일류, 향수류)
- 분무류 : 2개종 (스프레이류, 탈취제류)
- 젤 류 : 13개종 (시럽류, 잼류, 스텐류, 반죽류, 크림류, 화장품류, 헤어/샤워젤, 면도거품제, 치약류, 액체/고체 혼합류, 마스크라, 립글로스, 립밤)
- 기타류 : 1개종 (실온에서 용기 없이는 형상을 유지할 수 없는 물질)

○ 의약품 등 항공여행 중 사용할 물품 객실휴대반입 허용

- 1) 승객불편최소화를 위해 위험가능성이 크지 않은 의사처방 의약품과 의사처방 없이도 구입되는 시판약품 일부(감기약, 위장약, 기침 억제시럽, 비강스프레이, 콘택트렌즈 보존액, 안약, 의료용 식염수, 해열과스 등 8개종) 허용합니다.
- 2) 보호자동반 어린이이용 음식(우유, 음료, 모유, 이유식 등)과 승객의 건강에 꼭 필요하다고 의사처방있는 특별 식이처방음식(젓당 또는 글루텐 등)은 항공여행 중 승객이 사용할 분량에 한하여 객실내 휴대반입을 허용합니다.
- 3) 또한 국물없는 음식류는 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량에 구애없이 진위여부가 확인되면 휴대반입을 허용합니다.

■ 필리핀 여행시 지켜야 할 예절

우리는 민간 외교사절로서 문화민족이며 예의와 염치를 아는 민족입니다.

- 환경, 문화, 관습을 존중하며 해외 여행중에 시차를 맞추지 못해 약속시간을 어기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전준비를 합시다.
-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어린이를 심하게 야단치거나 때리면 어린이 학대죄로 고발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열대 지방에서는 음식물에 의한 전염병에 주의해야 합니다. 물은 판매하는 것이나 끓인 물을 마시도록 하고, 야채와 과일도 조심해서 먹어야 합니다.
- 남의 호의를 받거나 실수를 했을 때에는 "고맙습니다"(Thank you.) 또는 "미안합니다"(Sorry)란 말이나 표정 등으로 의사표시를 분명히 합시다.
- 모든 국가는 자국의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깁니다. 필리핀 고유의 풍습과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합시다.
- 버스, 지프니 등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반드시 질서를 지킵시다.
- 남을 유심히 바라보거나 손가락질해서 불쾌하게 만들거나, 여성에게 정중하게 대하지 않아 멸시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 한국의 경제 성장을 지나치게 자랑하거나, 너무 정치적 또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여 이를 듣는 외국인의 거부감을 사지 않도록 합시다.
- 일행끼리 큰소리로 떠들면서 심한 장난을 치는 것을 현지 외국인들이 오해하여 싸움이 벌어진 줄 알고 경찰을 부른 경우도 있으니 유의합시다.
- 비행기, 호텔, 식당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는 반드시 기본 예절을 지킵시다.

- 선물을 과다하게 구입하여 외화를 낭비하지 맙시다.
- 향락 행위가 아닌 지식을 쇼핑하는 교육여행이 되도록 합시다.
- 개별행동과 우범 지역의 출입을 피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합시다.

■ 숙소에서

- 숙소 입구에 서있는 무장 보안인력은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놀라지 않도록 한다.
- 숙소의 모든 시설은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 숙소의 냉장고의 물건은 이용하지 않는다.(만약 이용시에는 매우 비싼 값을 지불해야 함)
- 숙소에서는 절대로 떠들거나 지나친 장난으로 품위를 떨어뜨려서는 안된다.
- 아침 식사시간을 준수하고 (미리 알려줄 것임) 외출을 금한다. 식사는 먹을 만큼만 가져다 먹고 남기지 않도록 한다. 몇 번이고 가져다 먹을 수 있음.
- 숙소를 나설 때는 침대 머리맡에 1\$(또는 1000원)를 두고 나오는 것이 국제적인 매너다.
- 작은 배려에도 웃음으로 Thank You.를 표한다.

■ 필리핀의 식사예절

- 입안에 음식물을 넣은 채 이야기 하지않는다.
- 빠, 가시는 테이블이나 바닥에 뱉지 않는다.
- 접시에는 먹을 수 있는 양만큼만 담는다.
- 같이 먹는 음식에서 음식물을 덜 때는 개인용 스푼이 아닌 서빙용 스푼을 사용한다.
- 음식을 씹을 때는 크게 소리를 내지 않는다.
- 이에 음식이 끼었을 때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빼낸다.
- 식사테이블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다.

동양의 진주, 필리핀을 공부하자

Republic of the Philippines



개요

자연의 풍요로움과 문화의 풍성함 그리고 유쾌한 발견으로 가득한 군도 필리핀은 세 개의 주요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부에 위치한 루손(Luzon),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부에 자리잡고 있는 비자야(Visayas), 그리고 가장 큰 섬으로 남부에 위치한 민다나오(Mindanao). 필리핀은 79개 주로 나뉘어지며 이들은 다시 16개의 행정구역에 통합된다.

필리핀은 다양한 볼거리와 참여활동 및 이벤트로 가득하여 경이로

움으로 풍만한 이 섬나라를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거대한 산과 화산들은 필리핀의 위대한 전설을 말해주고 고대 도시들은 역사 속의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동굴들은 호기심을 자극하며 반짝이는 물과 열대성 기후는 일년 내내 여행객들을 유혹한다.

필리핀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영어 사용 국가이며 훌륭한 숙박 시설, 최고급 레스토랑, 현대적인 쇼핑센터 및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효율적인 집회 및 전시 기획업체, 그리고 전문적인 여행업체 등을 통해 세계수준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 수도: 마닐라
- 국토면적: 299,000 평방 킬로미터
- 인구: 8,461만명
- 국민: 대부분의 필리핀 국민은 말레이인, 중국인, 소수 회교도의 후손들이다. 필리핀 전역에 100여 개가 넘는 문화 소수 민족들이 살고 있다.
- 언어: 필리핀 언어와 영어 외에도 10여 개의 다른 언어와 87개의 방언이 사용된다.
- 종교: 로마 카톨릭의 교세가 가장 크며 기타 종교로 개신교, 회교 및 불교가 있다.
- 정부: 민주공화국 체제이다.
- 화폐: 필리핀 페소
- 지리: 필리핀은 필리핀해와 남중국해, 베트남 동부, 사바 북부 및 보르네오 사이에 위치한 군도이다. 국토의 길이는 1,900 킬로미터이고 폭은 1,110 킬로미터이다.
- 기후: 3월에서 5월까지의 덥고 건조하지만 6월부터 10월까지의 우기가 지속된다. 11월부터 2월까지의 시원하다. 평균온도는 78°F/32°C이고 습도는 77%이다

- 환경: 필리핀은 약 12,000 여종의 식물과 1,100 여종의 육지에 사는 척추동물 및 최소 500 여 종의 산호 등 다양하고 풍부한 생물이 살고 있다. 총 숲 면적은 약 18%이고 해안 생태계는 약 2만 킬로미터나 뻗어있다.
- 시간:그리니치 평균시간 + 8시간 (한국과의 시차 -1시간)

■ 역사

포르투갈 탐험가였던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이끄는 스페인 여행가들이 1521년에 필리핀을 발견하기 이전에 인도-말레이 상인과 중국 상인들이 이곳에 살고 있었다.

스페인 여행가들은 이 군도를 스페인 왕 필립 2세의 이름에서 따온 펠리피나스라고 칭했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필리핀에 기독교를 처음으로 들여왔다.

마닐라와 세부가 전략적 무역항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필리핀이 상업의 중심지로 이상적이라고 여겼다.

필리핀 행정부는 세부에 처음으로 설립되었다가 이후에 1571년 마닐라로 이주했다.

스페인 식민지는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 총 333년 동안 지속되면서 일련의 폭동을 역사에 남겼다.

필리핀 국민들은 1896년 아시아 최초로 민족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1898년 6월 12일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했다.

스페인 식민 통치자들이 떠난 후 미국인들이 들어와서 미국식 교육 및 법체계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적 정부형태도 도입시켰다.

미국인들은 1941년 세계 2차대전이 발발할 때까지 48년 동안 필리핀을 지배했으며 필리핀은 4년 동안 일본에 합병 당했다.

이후에 미군이 다시 들어와서 필리핀 국민을 해방시켰고 1946년 7월 4일 미국인들은 마침내 필리핀의 독립을 인정했다.

스페인 정복 이전 시대[~1571년]

- ① 기원전후 말레이계가 유입, 정착 - 원주민인 네그리토는 산악지대로 이주
- ② 이슬람의 유입
 - 15세기 ~ 16세기에 걸쳐 이슬람 교도들이 인도네시아로부터 이주
 - Sulu 열도로부터 민다나오섬 일대에 걸쳐 정착
 - 1565년 경에는 마닐라 지역에까지 진출
 - Sultan 또는 Raja에 의해 지배되는 소규모 영토국가 성립
- ③ 부락공동체
 - 지형적 여건(산악,섬)으로 정착과정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소규모의 Barangay (Datu를 우두머리로 한 일종의 가족중심의 부락공동체) 단위로 생활
 - 스페인 정복 시 전체 인구 약 50만명

스페인 식민지시대(1571~1898년)

- ① 마젤란의 필리핀 발견
 - 1521년 마젤란이 사마르섬에 상륙한 것을 계기로 하여 스페인은 수차례에 걸친 원정 끝에 1521년 필리핀을 정복
 - 필리핀의 국명은 당시 스페인 국왕 Philip에 유래하며 수도를 마닐라에 두고 약 330년간 지배
- ② 스페인에 대한 저항운동
 - 1860년 스페인에서 내란이 발생하자 필리핀의 대 스페인 저항운동 시작
 - 1892년 비밀 결사 'Katipunan'의 무장 봉기 발발
 - 1896년의 필리핀 혁명을 거쳐 1898년 6월 12일 Emilio F Aguinaldo 장군이 독립을 선언하고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1901년 3월 23일 Aguinaldo 피체로 소멸)

미국 식민지시대(1898년 ~ 1946년)

① 미국.스페인 강화조약

- 1898년 12월 미국.스페인 강화조약으로 스페인이 2천만불의 대가를 받고 필리핀을 미국에 이양함으로써 그 독립은 무산되고 미국통치 시작

② 점진적인 자치허용

- 1916년 양원제 도입(참정의 문호개방)

- 1934년 Tydings McDuffie Act 제정에 따라 10년 후에 완전 독립 부여 목표

- 1935년 11월 15일 Manuel L'Quezon 대통령의 자치정부 (Commonwealth of the Philippines) 출범 (1942년 일본의 침략 시까지 재임)

일본군의 점령(1942년 ~ 1945년)

- 1942년 10월 14일 Jose P. Laurel 을 수반으로 하는 괴정부 수립

- Sergio S Osmena 대통령에게 1945년 2월 3일 맥아더 장군이 자치정부 이양

- 1946년 7월 4일 미국으로부터 정식 독립

필리핀 공화국(1946년 ~)

① 역대정권

- 1946년 7월 ~ 1948년 4월 : manuel A Roxas

- 1948년 4월 ~ 1953년 1월 : Elpidio R Quirino

- 1953년 1월 ~ 1957년 3월 : Ramos F Magsaysay

- 1957년 3월 ~ 1961년 12월 : Carlos P Garcia

- 1961년 12월 ~ 1965년 12월 : Diosdado P Macapagal

- 1965년 12월 ~ 1986년 2월 : Ferdinand E Marcos

- 1986년 2월 ~ 1992년 6월 : Corazon C Aquino

- 1992년 6월 ~ 1998년 6월 : Fidel V Ramos

- 1998년 6월 ~ 2001년 1월 : Estrada, Joseph Ejercito

- 2001년 1월 ~ : Arroyo, Gloria Macapaga

■ 음식

필리핀의 문화는 건기와 우기로 구별되는 열대성 기후와 7,000여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섬들은 코딜레라 지역의 산, 루손의 평야, 팔라완의 산호초,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 많은 호수, 강, 온천 실개천을 품고 있다. 이 곳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생활 방식으로 집을 짓고, 천을 짜고, 이야기를 전하고 기록하며, 장식하고, 그리고 음식을 준비한다. 언젠가 무역을 위해 도래했던 중국인들이 자리를 잡았다. 아마도 이들은 가정에서 국수를 조리하고, 틀림 없이 현지의 조미료를 사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필리핀 주부들에게 자신들의 조리법을 소개했다. 이렇게 필리핀식 중국요리가 출현했다.

■ 축제

아띠아띠한 축제 (ATI-ATIHAN): 아클란, 칼리보(Kalibo, Aklan), 1월 13일-19일

아띠아띠한 축제는 13세기 이주해온 10명의 보르네오 족장과 토착민 아띠왕 마리쿠도 사이의 토지 거래를 기념하는 행사이다. 이 축제는 또한 이 도시의 수호성인인 어린 산토 니노를 기린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북소리가 울려 퍼지면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온몸을 흔들고 박수를 치며 몸에 검은 칠을 하고 화려한 복장을 한 수천명의 사람들과 어울려 고대의 흥겨운 의식을 펼친다. 귀에 익은 전투의 울부짖음이 들리는 혼돈이 칼리보 아클란을 뒤덮는다. "비바, 산토 니노 (Viva, Sto. Nino)!" 아띠아띠한 축제는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큰 호응이 있다.

시눌록 (SINULOG): 세부 시 (Cebu City), 1월 18일-19일

세부에서 개최되는 축제 중의 축제라 할 수 있다. 두 걸음 나아가고 한 걸음 후퇴하는 춤 사위가 독특하며, 이를 통해 해변의 어린

예수를 격려한다. 이 시놀록 축제는 100여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비자야 지역의 일부에서도 볼 수 있다. 사람들은 북장단에 맞추어 기도의 춤을 추며 "핏 세뇨르! 비바 산토 니뇨! (Pit Senor! Viva Sto. Nino!)"를 외친다. 누구든 이들과 자유롭게 어울려 춤을 출 수 있으며 세부 시립 스포츠센터에서 개최되는 폐막식까지 함께 즐길 수 있다.

디낙양 (DINAGYANG): 일로일로 시 (Iloilo City), 1월 25일-26일
이 무렵 주말이면 일로일로 시의 사람들은 일상의 속박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이 연례 축제에 참여한다. 아무도 이들을 막지 않으며 일상의 지루한 옷을 벗어 버리고 몸에 검은 칠을 한 뒤 '아띠 (Ati)' 전사의 복장으로 갈아입는다. 일로일로 주민들은 똥똥 울리는 북장단에 맞추어 방패와 창을 들고 디낙양 (Dinagyang)을 축하하여 전속력으로 뛰쳐나간다.

바기오 꽃축제 (Baguio Flower Festival): 파낙벵가 (PANAGBENGA), 2월 23일~3월 3일
소나무의 도시 바기오의 꽃철이다. 모두 뛰어나와 거리 축제를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절기이다. 바기오 주민들은 이 때가 되면 일상에서 잠시 쉬며 시원한 날씨와 이 도시의 문화에 흠뻑 젖는다.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고지대의 다양한 꽃을 흥내낸다. 꽃침대가 놓여지고 파낙벵가 (Panag bengga) 행렬이 벌어진다.

파히야스/마이온/아가완 (PAHIYAS/MAYON/AGAWAN): 케손 (Quezon), 5월 11일-15일
5월이면 꽃이 피지만 이것만이 이 즐거운 계절에 화사함을 자랑하는 것은 아니다. 남쪽 도시 케손의 룩반에 내려가면 쌀로 만든 형형 색색의 토틸라 빵인 키팅이 있다.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고 종

은 시절을 축하하는 파히야 축제에 가면 다양한 키팅이 참가자들을 기다린다.

피냐한 사 대트 (PINYAHAN SA DAET): 카마린 노르테, 대트 (Daet, Camarines Norte), 6월 15일-24일

카마린 노르테 지역의 대트 주민들은 달고 과즙이 풍부한 파인애플을 재배하며 파인애플을 너무나 좋아하는 나머지 이를 위한 축제를 연다. 파인애플 축제에는 화려한 거리 행진과 예술작품전시회, 무역박람회, 문화 댄스, 운동경기 등이 함께 개최된다.

탁로반 핀타도스 축제 (TACLOBAN PINTADOS FESTIVAL): 탁로반 시 (Tacloban City), 6월 29일

선사시대로 돌아가보면 탁로반의 원주민들에게 있어서 문신은 용기의 상징이었다. 오늘날에는 이것을 문화 행사로 되살려, 핀타도스라는 거칠고 색다른 축제가 되었다. 도시의 주민들이 고대 전사를 흉내내어 보디 페인팅을 하고 격렬한 복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는 장관을 연출한다.

■ 민족

필리핀 국민은 말레이족을 근간으로 하여 중국인, 미국인, 스페인인 및 아랍 혈통의 후손들로 구성되어 있다. 2000년 5월 기준으로 필리핀 인구는 7천6백5십만명이며 각 인종의 구별은 거의 없다. 서구 국가의 오랜 식민 통치 역사와 무역 상인들의 혈통이 섞여 외모와 문화 모두에서 동양과 서양이 독특하게 혼합된 국민이 나타났다. 필리핀 국민의 특성은 실제로 모든 문화가 조금씩 섞여 있다. 필리핀인들의 유명한 친족 정신은 말레이족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며, 긴밀한 가족 관계는 중국인으로부터 전해진 것이

다. 경건한 신앙심은 16세기 기독교를 전파한 스페인 사람들로부터 물려받았다. 친절은 모든 필리핀인의 공통 성격이며 구별되는 요소이다.

■ 종교

로마 카톨릭 83%, 개신교 9%, 회교 5%, 불교 및 기타 3%. 역사적으로 필리핀 국민은 기독교와 이슬람교 등 세계의 두 거대 종교를 받아들였다. 이슬람은 아랍의 상인과 모험가들이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직후인 14세기에 전파되었으며 현재는 남부 민다나오 지역에 제한되어 있다. 카톨릭은 1521년 페르디난드 마젤란의 도착과 함께 16세기에 전파되었다. 개신교는 1899년 미군의 주둔과 함께 장로교 및 감리교 전도사들에 의해 전파되었으며 20세기 초 독립적인 두개의 교단이 조직되어 현재까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 하나는 아글리파이 (필리핀독립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이글레시아 니 크리스토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1902년과 1914년에 설립되었다.

■ 교회

마닐라 대성당 (MANILA CATHEDRAL)

마닐라 인트라무로스의 로마광장에 위치 (Plaza Roma, Intramuros, Manila) 카톨릭 마닐라교구의 본산인 이 교회는 1581년 이후 현재의 위치에 6 번째 건축되었다. 이전의 교회들은 태풍, 지진, 화재 그리고 전쟁으로 파괴되었다. 현재의 교회는 1950년 하반기에 건축가 페르난도 오캄포 (Fernando Ocampo)와 루피노 J. 산토스 (Rufino J. Santos) 대주교의 노력으로 재건축되었다. 이 성당에는 석재 조각물과 꽃무늬살의 창문을 통해 필리핀의 기독교를 찬양하고 있으며 모자이크 예술작품이 3개의 부속 예배당을 장식하고 있다.

산 아구스틴 교회 (SAN AGUSTIN CHURCH)

마닐라 인트라무로스 레알 스트리트 (Gen. Luna cor. Real Street, Intramuros, Manila), 메트로 마닐라의 가장 오래된 석조 교회로 1571년 건축되었다. 교회로 들어가는 문 그 자체가 정교한 조각품이며, 바로크 양식의 설교단, 성가대석, 18세기의 파이프 오르간이 인상적이다.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산아구스틴 교회는 자연과 인간에 의한 참화를 견디어 내고 있다.

산 세바스찬 교회 (SAN SEBASTIAN CHURCH)

마닐라 키아포 카르멘 광장 (Plaza del Carmen, Quiapo, Manila) 보석상자와 같은 이 작은 교회는 필리핀과 아시아에서는 최초이고 세계적으로는 두 번째로 건축된 완전 철 구조물 교회이다. 교회 설계는 1883년에 완성되었고 벨기에에서 먼저 완공되었다. 그리고 완전 분해되어 6척의 배에 실려 필리핀으로 운반되었다. 성당의 세니자 신부에 따르면, 전체 무게는 5만톤 정도이며 현재까지 완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는 스테인드글라스는 프랑스에서 제작되었다.

여행자 수호 성모 교회 (OUR LADY OF PEACE AND GOOD VOYAGE)

리잘 안티폴로 (Antipolo, Rizal) 안티폴로는 여행자 수호 성모의 본향으로 알려져 있다. 역사적으로 이 기적의 성상은 마닐라와 아카폴코를 여덟번이나 왕복했으며, 이러한 여행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사람들에게 다가올 재난을 경고함으로써 배를 구했다고 전해진다.

바클라온 교회 (BACLAYON CHURCH)

보홀, 바클라온 (Baclayon town, Bohol), 시내에서 6 Km 거리에 위치한 이 교회는 1595년 제수이트에 의해 건축되었으며, 필리핀

에서 가장 오래된 석조 교회이다.

여행자를 위한 필리핀 메모

- **복장**: 가벼운 캐주얼 복장이 편하다. 산악지역에서는 좀 더 따뜻한 보온용 옷이 필요하다. 교회나 사원을 방문할 때에는 반바지나 노출이 심한 복장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식 행사의 경우 남자는 자켓과 넥타이(또는 필리핀 전통 복장인 바롱 따갈로그), 여자는 야회복 또는 긴 드레스가 적당하다.
- **화폐**: 화폐단위는 필리핀 페소(peso)이며 1페소는 100센타보(centavos)이다. 지폐는 10p, 20p, 50p, 100p, 500p, 1000p 짜리가 있으며 동전은 5c, 10c, 25c, 1p, 5p, 10p 짜리가 있다.
- **팁문화**: 팁을 주어야 하는 경우는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총 금액의 10퍼센트를 팁으로 준다. 10퍼센트 서비스비용이 계산서에 이미 부과된 경우 팁은 반드시 줄 필요는 없다.
- **교통 수단**
항공편으로는 필리핀항공(Tel. 632-855-9999), 에어 필리핀(Tel. 632-855-9000), 세부 퍼시픽(Tel. 632-636-4938)이 주요 도시로 매일 운항한다. 아시안 스피릿(Tel. 632-851-8888), 라오악 국제항공(Tel. 632-551-9729), 씨에어(Tel. 891-8708)는 선교지역도 운항한다. 소형 비행기로 주요 여행지까지 운행하는 전세기 스케줄도 있다.. 배편으로는 인터아일랜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마닐라와 주요 항구지역을 오갈 수 있다. 페리는 작은 섬들을 오갈 때 이용된다.
육상교통으로는 필트란코(Philtranco)가 마닐라와 남부 루손 지역의 비콜(Bicol), 비자야 지역의 사마르(Samar)

와 레이트(Leyte), 그리고 민다나오의 다바오를 연결한다.. 미터요금 및 고정요금제 택시는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지프니와 버스는 대부분의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저렴한 교통수단이다. 메트로 마닐라에서 가장 빠른 교통수단은 철도이다. 경전철(Light Rail Transport)은 모뉴멘토(Monumento) 북부지역에서 바클라란(Baclaran)의 남부지역까지 운행되고 있으며 주요 교차로에 정거장이 설치되어 있다. 메트로 레일(MRT)은 EDSA를 종으로 관통하며 마카티의 금융지구 중심부를 따라 퀘손 시티(Quezon City)의 노스 애브뉴(North Avenue)와 파사이 시티(Pasay City)의 태프트 애브뉴(Taft Avenue)를 연결하고 있다.

- 언어: 국가 공식언어는 필리핀어이지만 영어가 비즈니스 언어로써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 숙박시설: 메트로 마닐라 및 필리핀 전역의 주요 도시에서는 초호화형, 일반형, 절약형, 펜션형의 다양한 숙박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섬 지역에서는 초호화형에서부터 특별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리조트가 마련되어 있다.
- 관광부에서는 마닐라 외각의 여러 지역에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은 방문객들에게 중산층 가정의 안락함과 필리핀 국민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관광부 연락처는 전화번호 632-524-2384/524-1703이며, 찾아가려면 관광부 빌딩 106호 여행객 안내센터로 찾아가야 한다.
- 음식 : 필리핀 음식은 동양과 유럽 및 미국음식이 혼합

된 이국적이면서도 맛있는 요리로 신선한 해산물과 맛있는 과일이 다양하게 나온다. 일등급 레스토랑은 필리핀 음식뿐만 아니라 별미도 선보인다.

- 엔터테인먼트와 문화 : 메트로 마닐라는 엔터테인먼트와 문화활동의 중심지이다. 공연예술을 위한 최고 무대인 필리핀 문화센터(Cultural Center of the Philippines)는 국내 및 국제 게스트 아티스트들의 뛰어난 공연을 선보인다. 마닐라 및 다른 지역에 위치한 박물관들은 필리핀 역사와 문화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 미술관들은 필리핀의 전도유망한 주요 시각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한다. 마닐라의 밤은 아시아에서 가장 활동적인 곳으로 필리핀 국민의 음악에 대한 사랑을 보여준다. 밤의 환락이 펼쳐지는 중심가로는 말라테의 레메디오스 서클(Remedios Circle), 마카티의 보니파시오 글로벌 시티(Bonifacio Global City)에 있는 아얌라 센터(Ayala Center)와 포트(The Fort), 퀘손 시티의 티모그 및 토마스 모라토 애브뉴(Timog & Tomas Morato Avenues), 만달루용 시티(Mandaluyong City)와 파식 시티(Pasig City)에 있는 오르티가스 센터(Ortigas Center), 퀘손 시티의 리비스(Libis)에 위치한 이스트우드(Eastwood) 등이 있다. 클럽과 뮤직 라운지 및 술집과 노래방에는 필리핀 밴드 및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들이 출연한다. 최상급 호텔들은 다양한 라이브 음악도 제공한다. 콘서트와 연극무대는 필리핀의 엔터테인먼트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 쇼핑: 방문객들은 저렴한 가격에 남양진주(South Sea Pearls), 수공예 장식천, 자수 새긴 장식품, 화려한 의류

및 디자이너 옷, 테라코타 및 자기, 산호, 진주모 (mother-of-pearl) 가정용 액세서리 등을 수출용 품질의 상품으로 구입할 수 있다. 공예품, 파인애플 섬유 셔츠, 선사시대 항아리, 토속 수공예품 및 신발류도 흥미로운 제품들이다. 필리핀은 훌륭한 가구, 바구니 세공품, 신선한 과일 및 가공된 과일, 정교하게 제작된 보석, 및 조개나 나무 및 돌로 만들어진 선물용 제품들도 생산한다. 큰 쇼핑몰들은 메트로 마닐라의 주요 도시에 위치한 반면 수공예품이나 골동품점은 마닐라의 에르미타 지역과 메트로 마닐라 근교에 많이 자리잡고 있다.

- 영업시간 및 은행업무시간 : 사기업 및 관공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8시-오후 5시, 또는 오전 9시-오후 6시가 근무시간이다. 사기업은 토요일 오전 9시-12:00시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쇼핑몰과 백화점 및 슈퍼마켓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영업하며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과 약국도 있다.
은행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근무하며 현금자동지급기는 24시간 운용된다.
- 신용카드 : 비자, 다이너스 클럽, 마스터 카드 및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같은 국제 신용카드는 주요시설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 전력 : 220 볼트, 교류 60 사이클. 대부분의 호텔들은 110 볼트 콘센트를 사용한다.
- 통신시설 : 필리핀에는 국제 및 국내 직통전화 및 팩시밀리, 이동통신 전화, 인터넷 및 이 메일 접속 서비스, 국

제 우편 서비스가 제공된다. 우체국 시설은 효율적으로 되어 있다. 대부분의 일간지는 영어로 출간된다. 외국 신문이나 잡지는 메트로 마닐라 및 대도시의 주요 호텔, 쇼핑몰, 서점에서 판매한다. 7곳의 국립 방송사들은 대부분 필리핀어로 방송을 한다. 케이블 TV는 마닐라 및 여러 지방의 호텔에서 시청 가능하다.

- 물 : 메트로 마닐라와 주요 도시의 수도물은 그냥 마셔도 된다. 생수는 여러 호텔, 레스토랑, 리조트, 슈퍼마켓 및 편의점에서 판매한다.
- 컨벤션 시설 : 컨벤션에 있어서 아시아의 선구자적 도시인 마닐라는 다수의 유력한 국제 행사를 주최했다. 필리핀 국제 컨벤션 센터(Philippine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는 현대적 컨벤션 시설과 서비스가 갖추어져 있다. 이 곳의 플레너리 홀(Plenary Hall)은 4천 여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리셉션 홀(Reception Hall)은 5천 7백 여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필리핀 국제 컨벤션 센터 근처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World Trade Center)는 거대한 규모의 전시와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소규모의 미팅은 호텔이나 다른 시설들에서 열린다. 지방의 호텔과 리조트도 컨벤션 센터를 대신해서 활용된다.
- 여행 및 취미활동: 1일에서 5일까지 소요되는 여행 패키지 프로그램들은 필리핀과 필리핀의 문화유산을 발견하는 좋은 방법이다. 취미활동으로는 골프, 경기낚시, 다이빙, 화이트 워터 래프팅(white-water rafting) 및 기타 수상 스포츠, 트레킹, 동굴탐험, 사파리 여행 등이 있다.

- 필리핀 휴일

1월 1일: 설날

4월 9일: 성목요일 (예수 승천일)

4월 10일: 성금요일 (예수 수난일)

5월 1일: 노동절

6월 12일: 독립기념일

11월 1일: 만성절

11월 30일: 국민영웅의 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12월 30일: 리잘 기념일

- 학교

필리핀의 학교시스템은 우리와 달리 6-4-4제를 선택하고 있다.

학년의 시작은 매년 6월이며 3월에 학년말이 된다. 4-5월은 방학이다.

중간 중간에 크리스마스 방학 등 몇 가지 짧은 방학이 있다.

교과서는 국어(타갈로그어)를 제외하고는 모두 영어로 되어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는 우리나라 고교 수준 정도다.

2년대 대학이나 정규과정이 아닌 학교, 사립학교도 있다.

대트로 마닐라 지도



일정별 주요 행사지 안내

제 1일(7월 19일, 출발의 날)

김해(부산)국제공항

낙동강 하류의 삼각주에 있는 부산권과 경남지역의 항공교통요지다. 1976년 8월 국제공항으로 개장되기 이전에는 부산의 수영비행장을 부산국제공항으로 사용하던 중,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부산지역의 항공수요가 급증하였다.

1975년 10월 부산~후쿠오카[福岡] 노선에 대한항공의 A300 여객기가 취항하면서 시설이 한계점을 드러내게 되어 현재의 김해공항으로 이전하고, 명칭도 김해국제공항으로 개칭하였다. 1983년 5월부터 국제공항관리공단(지금의 한국공항공사)으로 이관되어 관리·운영되고 있다.

주요 항로는 1948년 서울~부산 간, 1968년 부산~제주~오사카[大阪] 간, 1975년 부산~도쿄[東京] 간이 개설되었다. 2006년 현재 국내선은 김포·제주·양양·인천, 국제선은 일본의 도쿄 나리타·후쿠오카·오사카·나고야·삿포로, 중국의 상하이 푸둥·베이징·시안·칭다오·선양·다롄·항저우와 홍콩, 태국의 방콕·푸껫,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사할린, 필리핀의 마닐라, 타이완의 타이베이, 독일의 뮌헨, 베트남의 호치민, 미국령의 괌·사이판 등지로 연결된다.

시설은 396만 6,688㎡의 부지에 활주로가 2개소(길이 3,200m, 너비 60m와 길이 2,743m, 너비 45m), 계류장 38만 2,594㎡, 국내선 여객터미널 3만 7,282㎡, 국제선 여객터미널 1만 9,514㎡, 주차장 8만 1848㎡, 화물터미널 1만 7,646㎡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간 항공기 이착륙 능력은 20만 회, 국제여객 166만여 명, 국내여객 126만여 명, 화물 25만여t, 대소형 차량 2,500여 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시설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공항에서 출국하기

국제선의 경우 출국시에는 최소 3시간 전에 도착하시는 것이 탑승수속에 도움이 된다.

1. 탑승수속

- 공항에 도착하신 여객은 먼저 해당 항공사에서 운영하는 체크인카운터로 이동하여 탑승수속을 받는다.
- 체크인카운터에서는 기내에 휴대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탁수하물로 처리하여야 하며, 기내에는 가로55cm, 세로40cm, 높이 20cm (총합 115cm 이내), 무게 10kg 이내의 물품에 대해서만 반입이 허용되며, 휴대물품 중 기내반입 시 여객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물품(예 맥가이버칼, 송곳, 드라이버 등과 액체가 있는 물질)은 여객의 안전을 위해 절대 반입해서는 안된다. 휴대하지 말고 카트에 넣어 위탁수하물로 부친다.
- 위탁수하물 중에 세관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수하물 전용 카운터 옆 세관신고대에서 신고하여야 하며, 대형수하물은 대형수하물 전용카운터에서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 좌석을 창가(Window Side) 또는 복도석(Isle-아일이라 함)을 지정하게 되는 데, 창가로 앉으면 창밖으로 공항을 바라볼 수 있어 좋지만 반면 화장실 가려면 옆사람을 조금은 귀찮게...그런데 장시간 가는 여행이 아니므로 창가를 추천.

2. 출국 신고서 작성: 체크인카운터에 비치된 출국신고서를 작성하여 출국신고 시 제출합니다. 출국신고서는 출국장 안에도 비치되어 있으나, 미리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며 출국수속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대한민국 입국신고서 / ARRIVAL CARD ① REPUBLIC OF KOREA 入国申告書 IMMIGRATION SERVICE				대한민국 출국신고서 / DEPARTURE CARD ② REPUBLIC OF KOREA 出港申告書 IMMIGRATION SERVICE			
한글성명 / Surname / 姓 홍				한글성명 / Surname / 姓 홍			
Given Names / 名 길동				Given Names / 名 길동			
생년월일 / Date of Birth / 生年月日 1997. 5. 10. 25		주민등록번호 / 住民登録番号 123456789		생년월일 / Date of Birth / 生年月日 1997. 5. 10. 25		주민등록번호 / 住民登録番号 123456789	
성별 / SEX / 性別 ♂/MALE/ 男		여권번호 / Passport No. / 搭乗券番号 1234567		성별 / SEX / 性別 ♂/MALE/ 男		여권번호 / Passport No. / 搭乗券番号 1234567	
국적 / Nationality / 国籍 대한민국		여권번호 / Passport No. / 搭乗券番号 1234567		국적 / Nationality / 国籍 대한민국		여권번호 / Passport No. / 搭乗券番号 1234567	
한국내 주소 / Address in Korea / 韓国内 住所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1-31 (Tel: 02-563-4613)				한국내 주소 / Address in Korea / 韓国内 住所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1-31 (Tel: 02-563-4613)			
직업 / Occupation / 職業 회사원/투어업스트레스		여행목적 / Purpose of visit / 旅行目的 여행		직업 / Occupation / 職業 회사원/투어업스트레스		여행목적 / Purpose of visit / 旅行目的 여행	
출발지(국가/도시) / 出發地 Last City / Port of Boarding 태국/방콕		입국명령·선명 / 入國便名・船名 Flight No. / Vessel on Arrival KE 012		목적지(국가/도시) / 目的地 Next City / Port of Landing 태국/방콕		출국명령·선명 / 出國便名・船名 Flight No. / Vessel on Departure KE 011	
공용인 / 公用欄 / Official Use Only KEA29357646E		서명 / Signature / 署名 Hong		공용인 / 公用欄 / Official Use Only KEA29357646D		서명 / Signature / 署名 Hong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2005년 11월 1일부터 출입국 심사가 간소화되어 내국인은 출국 신고서만, 외국인도 입국신고서만 작성하시면 된다. 국적에 따라 기재해야 할 출국 또는 입국신고서 내용을 모두 한글 정자로 기재. 출입국신고서는 항공사 카운터 및 출국심사대 앞 안쪽 입구에 비치되어 있다. 신속한 출국심사를 위해 미리 작성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출입국신고서의 좌측은 입국신고서, 우측은 출국신고서다.

- 병무신고:** 병역미필자로 18세 ~ 35세 청년이라면 병무신고를 하고 출국해야 한다. 지방병무청에 미리 전화로 확인.(여러분은 해당 없음).
- 세관신고 :** 미화 1만불(약 100만원)을 초과하는 외화를 휴대 반출할 경우 세관 외환신고대에 신고하면 직접 가지고 출국할 수 있다. 고가품을 갖고 나가실 때에는 신고해야 한다. 귀국시

영수증이 없으므로 외국에서 구입한 것으로 오해 받으면 공연히 세금만 물어야 하니까.

5. 보안검색 : 탑승수속 및 세관신고를 마치면 가까운 출국장(여권 보딩패스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음) 으로 이동하여 보안검색을 받는다.

- 보안검색대에서 순서대로 보안검색을 받는다.
- 보안검색대에서는 검색요원의 안내에 의해 대기선에서 순서에 따라 휴대물품은 X-ray검색장비 컨베이어위에 올려놓고 소지품(휴대폰, 동전 등)은 바구니에 넣고 문형금속탐지기를 통과하기 바람.

- 보안검색을 모두 마친 여객은 본인의 휴대물품을 가지고 출국심사지역으로 이동.

- 보안검색 또는 출국심사를 마친 후에는 휴대폰 로밍, 현금 인출, 환송객 접촉 등 개인적인 사유로 보안구역으로 나갈 수 없으니 모든 개인적인 용무를 마친 후에 보안구역으로 입장할 것.

6. 출국심사: 출국심사대 앞의 대기선(황색선)에서 기다리다가 자신의 차례가 되면 여권, 탑승권, 출입국신고서를 직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출국심사관은 여권에 출국확인을 해주고, 출국신고서는 떼어낸 후 입국신고서는 여권과 함께 돌려준다.(입국신고서는 귀국할 때 필요하므로 귀국 때까지 보관하고,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귀국편의 비행기에서 다시 작성하면 된다.-내국인은 면제)

7. 탑승 : 탑승권에 표시된 탑승구(Gate) 근처의 라운지에서 시원하게 트인 전경을 감상하며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거나, 공항에서 제공하는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항공기 출발 30~40분전에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항공기에

답송하면 된다.

8. 기내에서

- 기내에서 조용하게 담소할 수 있으나 큰소리로 떠들어서는 안된다.
-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면 되고 이착륙시 전자장비의 사용을 금한다.
- 기내식은 몇 가지가 있는데 자신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되고 음료도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 선반에 올려놓은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마닐라공항(Manila Ninoy Aquino International Airport)

필리핀 공항 도착과 입국절차

필리핀(마닐라)에는 2개의 국제선 공항과 1개의 국내선 공항이 있으며, 최근 국제공항 3터미널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공항간 거리는 약 1~2Km 내외)

1. NINOY AQUINO INTERNATIONAL AIRPORT [국제선 전용 공항] - 터미널 1(구공항): 국제선 전용 공항으로 필리핀 항공외 모든 항공사 취항. (대한, 아시아나, 세부퍼시픽항공등)
2. NAIA CENTENNIAL TERMINAL 2 [국제. 국내선 겸용 공항] - 터미널 2(신공항), 국내. 국제 겸용 공항으로 필리핀 항공 (PHILIPPINE AIRLINE)만 취항. (필리핀 항공)
3. DOMESTIC AIRPORT [국내선 전용 공항] : 국내선 전용 공항으로 필리핀 항공(PHILIPPINE AIRLINE)을 제외한 필리핀 각 지역(일로일로)으로 가는 항공사가 취항.(ASIAN SPIRIT, CEBU PACIFIC,SEAIR, AIR PHILIPPINE 등)

지금부터는 필리핀항공 이용시 방법이다.

비행기가 마닐라에 도착하면 머리위 선반에 있는 짐을 찾아 들고 밖으로 나온다. 사람들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입국심사장이 나오는데. 입국심사대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다 차례가 오면 이민국 직원에게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제출하고 기다린다. 잠시후 스탬프를 찍어주는데 반드시 확인하시고 여권을 받아서 짐 찾는 곳으로 가면된다. (15세 미만은 이민국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인솔교사와 함께 대기)

성별 구분으로 남자(MALE), 여자(FEMAL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Department of Finance
BUREAU OF CUSTOMS No. 3237404
Ninoy Aquino International Airport

CUSTOMS DECLARATION

Each arriving traveler or responsible family member must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only ONE written declaration per family is required)

SURNAME / FAMILY NAME FIRST NAME MIDDLE NAME

1. ☒ MALE BIRTHDAY (MM/DD/YYYY) COUNTRY OF BIRTH
2. ☐ FEMALE 생년월일 국적(KOREA)

CITIZENSHIP OCCUPATION

시민권(SEOUL) 학생(Student)

ADDRESS ABROAD (NO., STREET, TOWN / CITY, STATE / COUNTRY, ZIP CODE)
필리핀주소 (Alabang Muntinlupa Manila)

ADDRESS IN THE PHILIPPINES (NO., STREET, TOWN / CITY, PROVINCE)
한국주소

PASSPORT NUMBER PLACE OF ISSUE DATE OF ISSUE (MM/DD/YYYY)
여권번호 여권발급지 여권발급일자

MAIN PURPOSE OF TRAVEL (CHECK APPROPRIATE BOX)
1. ☒ HOLIDAY / PLEASURE 3. ☐ CONVENTION 5. ☐ OTHERS (SPECIFY)
2. ☐ VISIT FRIENDS / RELATIVES 4. ☐ BUSINESS

NUMBER OF VISITS TO THE PHILIPPINES TRAVELING ON PACKAGE TOUR?
1. ☒ 1 2. ☐ 2 or more 1. ☐ YES 2. ☒ NO

SIGNATURE OF PASSENGER AIRPORT OF ORIGIN FLIGHT NO.
보인 서명 INCHEON OZ 601

FOR PHILIPPINE OVERSEAS CONTRACT WORKERS / BALIKBAYAN ONLY

ODW ID NO. REASON(S) FOR RETURNING TO RP
DATE OF LAST DEPARTURE 1. ☐ CONTRACT TERMINATED
(MM / DD / YY) 2. ☐ VACATION / ON LEAVE
3. ☐ HEALTH 4. ☐ OTHERS (SPECIFY)

WARNING: DEATH TO DRUG TRAFFICKERS UNDER PHILIPPINE LAW (RA 7659)

주부의 경우(House Wife)

ACCOMPANYING MEMBERS OF THE FAMILY

NAME	AGE	SEX	RELATIONSHIP

NO. OF ACCOMPANIED BAGGAGE CHECKED-IN HANDCARRIED

GENERAL DECLARATIONS:
I am/We are:

1. Bringing fruits, plants, meats, food, soil, birds, snails, other live animals, wildlife products, farm products, or have been on a farm or ranch outside the Philippines. ☐ Yes ☒ No

2. Carrying Philippines notes and coins, checks, money order and other bills of exchange drawn in pesos against banks operating in the Philippines in excess of P10,000.00 with Central Bank authority. ☐ Yes ☒ No

3. Bringing firearms, parts and ammunition. ☐ Yes ☒ No

4. Bringing in imported goods in excess of \$350.00 ☐ Yes ☒ No

SIGNATURE OF CUSTOMS OFFICER DATE LANE NO.

WARNING

1. A false declaration on any of the above General Declarations shall constitute as a violation on the Gift and Customs Code of the Philippines, as amended.

2. It is illegal for any incoming or outgoing passengers to bring in or out of the Philippines Philippine notes and coins, checks, money order and other bills of exchange drawn against banks operating in the Philippines in excess of P 10,000.00 without prior authority from the Bangko Sentral ng Pilipinas.

항공기 편명으로 대한항공(KE), 아시아나(OZ), 필리핀항공(PR)

- ▶ 여행목적 : 휴가 / 친지방문 / 회의 / 사업 / 기타 가운데 선택 표기
- ▶ 필리핀 방문횟수 / 단체 여행 여부 표기
- ▶ 마약 밀수의 경우 필리핀 법률에 의거 사형까지 가능함을 경고

*주의 : 가끔 이민국 직원에게 큰소리를 치거나 불쾌한 언행등으로(한국말 포함) 입국이 거절되는 사례가 가끔 발생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하면 의례히 못사는 나라니까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곳은 필리핀이고 필리핀법이 있습니다. 이민국직원에게 무례한 언행은 입국 불허로 이어집니다 특히 필리핀 이민국직원들은 한국인들에 대해 안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기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절대로 여권이나 항공권 안에 지폐를 넣어두지 마세요. 그건 그냥 가지세요라는 뜻입니다

입국심사를 마친 후 바로 앞쪽에 있는 컨베이너(타고온 비행기 편명 확인)에서 짐을 찾으시면 된다 (우리의 짐에는 동일한 색의 띠를 붙여놓을 예정임)

짐을 찾고 출구로 나가시다 보면 세관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기내에서 적은 **세관 신고서**를 제출하고 짐에 붙어 있는 일련번호 스티커(일명 백태요)와 항공기티켓에 붙은 백태요가 같은 번호인지를 확인합니다. 이것은 진짜 주인 가방인지를



< 센테니얼 공항(신공항, PR전용 공항 1F 입국) >
- 필리핀 항공 이용 고객

< 필리핀 전용공항(센터니얼) 1층 입국 장면 - 필리핀 항공 이용 손님 >

확인하는 것이다.

이때 일부 필리핀 직원이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박스를 개봉해 보라고 하기도 하고.....이때는 박스를 개봉해 주어야 한다. (의심되는 물건은 개봉해 볼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 여기서도 직원들과 실랑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MEMO 하기]

기내에서 옆자리에 외국인이 있다면 이야기를 나눠보고 사진도 받아보자. 여
러분이 대화를 나누는 만큼 자신감이 생긴다. 반드시 예의를 갖추어서!

첫날의 기록: 7월 19일 화요일 날씨 ()

(오늘의 느낌을 적어보자)

제 20일(7월 20일, 교류와 협력의 날)

노발리치고등학교

소재지: Lakandula St. , T.S. Cruz Subdivision, San Agustin, Novaliches, Quezon City, Philippines

노발리치 고등학교(교장: 몬카다 박사)는 케손시에 위치한 고교로 1~4학년 7600명의 남/여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으며 250명의 교직원이 있는 규모가 큰 학교다. 수업은 아침 6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우리는 이곳에서 환영식과 친구들과의 만남, 수업참관, 공동프로젝트를 수행을 위한 협의, 자매결연, 문화교류 등을 하며 매우 소중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친구들과 예의를 지키며 정중하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선물을 교환하기 바란다.

주요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환영행사에서는 감사와 기쁨으로 참여하고 친절한 응대를 받으면 “thank you, 어른에게는 “Thank you, sir”를 연발하거나 “살라맛” 또는 “살맛 뽀”로 인사하자.

수업에는 정성을 다하여 참여하자.

visiting partner school , Novaliches High School

*Greeting ceremony

*Discuss cooperative projects

*Joint Class (Students of CMS & NHS (Learning together))

-Mr. Hwang: Assemble Electronic Kit(28 kits)

-Ms. Jang and a teacher of NHS: English lesson

* Conference for ICT teachers

>Lunch

*Culture Exchange: Teach and Learn culture each other.

*Friendly sports games:

>Dinner @ Hotel *Invite Dr. Moncada , Dr. Perlado and teachers...

둘째날의 기록: 7월 20일 수요일 날씨 ()

(인상 깊은 내용을 이곳에 적어보자)

친구들의 사인도 받아보자

둘째날의 기록: 7월 20일 수요일 날씨 ()

(인상 깊은 내용을 이곳에 적어보자)

친구들의 사인도 받아보자

제 3일 (7월 21일, 교육체제의 날2)

필리핀 교육부



홈페이지 :

<http://www.deped.gov.ph/default.asp>

DepEd(Department of Education) 로 축약하여 부르며 햇불을 추가한 로고가 인상적이다.

Meralco Avenue, Pasig City에 소재하고 있고 Armin Luistro 장관이 시무하고 있는 필리핀 교육의 산실이다.

필리핀은 6-4-2(4) 학교제도를 가지고 있다. 우리와는 달리 중학교가 없으며 중고등학교를 합친 4년제 고등학교가 있다.(보통 secondary school 이라 부른다)

새로 취임한 아키노 대통령이 유치원 의무교육 화를 포함한 기초교육 12년제의 도입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새 학기부터 12년제 도입을 위한 현행 교육제도 조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교육부는 “현행 제도에서 완성도 높은 교육과정에 무리 없이 이행하고 싶다”며 교육부와 고등교육위원회, 기술 교육기술개발청(TESDA) 및 공사립 교육기관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새로운 교육제도의 최종안 계획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새로운 교육제도 안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5세 아동에 대한 유치원교육이 의무 교육이 되는 것 외에 초등학교 (6년제)와 중학교(4년제) 교육기간, 그리고 새로운 2년제 고등학교(수석 고등학교)를 신설

하는 교육 개혁이다.

교사들의 임금 수준이 너무 낮아 이직률이 높다. 학교장은 레벨 1~4까지 있으며 대부분 박사학위 소지자들이다. 학교장이 이동하고 교사는 한 학교에 계속 근무하며 부서별로 Head teacher(수석교사, 부장)가 그 부서를 총괄하며 지도한다.

학교는 아침 6시에 시작하여 12시에 끝나는 오전반과 12시에 시작하여 저녁에 끝나는 오후반이 있다.

필리핀대학교

필리핀 최고의 대학으로 (필리핀어: Unibersidad ng Pilipinas, 이니셜 U.P.) 필리핀의 국립 대학교이다. 1908년에 필리핀 첫 입법 Act No. 1870은 대학교 ACT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의 당국에 의한것이다. 대학교는 현재 필리핀에서 가장 많은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학교는 필리핀의 고급 고등 교육기관으로 고려된다. 약 7인의 필리핀 대통령이 대학교에 대학원생 또는 학부생으로 출석하였고, 12인의 대법원장이 그리고 필리핀의 국가 예술인 57인중 36명이 그리고 필리핀 국가과학자 31인중 30명이 대학이 이력에 들어 있다.

표어는 Honor and Excellence , 총장은 Dr. Emerlinda R. Román , 딜리먼, 퀴전 시 (주 캠퍼스) 에 있으며 11 캠퍼스, 1 개방 대학교 ,학생 수 53,285명 (2009.5) ,교직원 수 교수 4,135명 (2004) , 상징 /상징색 Maroon and Forest Green 이다.

우리나라 유학생들도 많은 유서깊은 대학이다.

다음은 그들이 소개하는 필리핀대학이다. 참고로 읽어보자.

AS THE ONLY national university in the country, th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System takes pride in being the pioneer in higher education through academic excellence, outstanding research, public service, and modernized facilities.

Established in 1908, UP started as a small Manila campus with only a few colleges. Over the years, UP has made a reputation for itself as a research



and graduate university that produces scientific and creative outputs of the highest quality which receive both national and in international recognition. Today, the University is comprised of seven constituent universities located in 12 campuses throughout the Philippine archipelago. UP's constituent universities nurture the intellectual and cultural growth of the Filipino through 246 undergraduate and 362 graduate programs. No other academic institution in the country can match the scope and range of

the University's course offerings that include almost all disciplines and embrace all interests and inclinations. 30 percent of its faculty have doctorate degrees and 42 percent have master's degrees. The rest are working on their graduate studies.

UP's student population of over 50,000 thrives in the liberal atmosphere that is part of the tradition of a UP education. And UP graduates have become the country's leaders in politics and governance, law, the sciences, and the arts.

To date, UP has produced more than 25 National Scientists in fields as diverse as history, engineering, physics, agriculture, biophysical chemistry,

psychology, medicine, plant physiology, genetics, and cytogenetics. But UP's strength does not lie in its scientific pursuits alone: 30 out of 50 National Artists named thus far are UP alumni, coming from literature, the visual arts, music, dance, theater, film, and architecture.

UP also maintains an exemplary performance record in professional licensure examinations in fields such as law, accounting, medicine, dentistry, pharmacy, chemistry, geology, engineering, environmental planning, education, library science, social work, nutrition and dietetics, interior design, architecture, fisheries, agriculture, etc.

Internationally recognized as the leading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e country, UP is the only Philippine university in the Association of Pacific Rim Universities (APRU), where membership is based on the nomination and votes of member universities. UP is also the only Philippine university in the ASEAN-European University Network (ASEA UNINET), and is one of two Philippine universities in the ASEAN University Network (AUN).

As it approaches its centennial, the University aims to further improve its academic and research programs across the System and works towards strengthening its units outside Metro Manila. By streamlining functions, encouraging innovation and creativity in its course offerings, as well as developing its technological and physical infrastructure, UP hopes to meet the demands of the changing times and take its place as one of the best in the region, and eventually, the world.

퀘존시

홈페이지 <http://www.quezoncity.gov.ph/>

퀘존시는 1896년 8월 23일, 스페인에 저항하는 지식인운동 까티푸난(Katipunan-민족의 어린이들을 위한 최고의 회합이라는 뜻. KKK로 약자로 쓰임)을 주도하여 당시에 1만5천에서 4만5천 명 정도의 회원을 조직했던 안드레스 보니파쇼(Andres Bonigacio)가 혁명을 선언했던 저항의 도시로 유명하다. 또한 미국의 신탁통치 정부의 초대대통령이었던 (마누엘 퀘존 Manuel L. Quezon)에 의해 필리핀의 수도가 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1939년 10월 12일 퀘존시로 명명을 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1948년 7월 17일 퀘존시를 수도로 명명하게 되었다. 면적도 처음 15킬로평방미터에서 지금은 171평방킬로미터, 4개의 구에 142개 바랑가이(우리나라의 동, 마을단위)에 인구 2백50만 명으로 메트로 마닐라에서 가장 큰 도시이다. 1975년 독재자 마르코스 대통령이 메트로 마닐라를 세우고, 이듬해인 1976년 마르코스는 수도를 퀘존에서 마닐라 시로 옮긴다. 우리 교민도 약 10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들이 경영하는 한식당은 맛깔스런 한식을 제공한다.

초대 퀘존시장은 코마스 모라토(1939년 11월 5일)였으며 9번째로 선출된 벨몬테 (Feliciano R. Belmonte) 시장은 지난 2001년 6월 30일 선출된 이래 2010년초까지 연임을 하였고 지난 6년 동안우리 일행의 2번의 방문을 매우 반갑게 맞아주었다. 지금은 Herbert M. Bautista 시장이 녹색도시를 표방하며 열기를 불태우고 있다.

퀘존시는 시청이 부근에 있는 퀘존씨클(반경 1km의 원형교차로) 공원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놓여 있는 도로를 따라 정부의 주요청사들이 위치해있다. 필리핀은행(우리의 한국은행), BIR(국세청), SSS(사회보험).....

퀘존시는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 주변에 필리핀의 명문대학이 위치해 있다. 퀘존씨클공원에서 가장 가까운 대로를 따라 필리핀의 국립의

명문 대학인 필리핀대학교(UP)와 사립의 명문인 아테네오 대학교가 이어져 있다.

퀘존씨클공원에는 식당가와 여러 오락시설(자전거타기, 운동시설 등)구비되어 있어 시민들의 안식처임과 동시에 주말마다 다양한 집회 장소로 많이 사용된다. 현재 메트로마닐라를 대표하는 공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여러공사가 진행되고있다.

필리핀의 NGO들은 메트로 마닐라 중에 퀘존시에 몰려있고, 그중에서 필리핀대학교가 있는 ‘딜리만’거리에 대부분 몰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래서 딜리만을 ‘NGO 수도’라고도 한다. 아시아에 굶직한 국제시민단체들은 여성, 환경, 인권 등 많은 단체들이 한집 건너 하나씩 있을 정도이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기자회견 등도 부근의 레스토랑 ‘트리 하우스’에서 심심치 않게 열린다.

말라카냥 궁전(Malacanang Palace)

꾸아포에서 Arlegui St.를 따라 20여분 정도 걸으면 필리핀 대통령의 공식적인 관저인 말라까냥궁에 다다른다. 파식강변에 자리잡은 이 궁은 18세기 후반에 개인 저택으로 지어졌으며, 1825년에 스페인 총독부가 이를 사들여 총독의 여름철 관저로 사용되다, 1863년 인트라무로스의 총독관저인 Palacio Real이 지진으로 파괴된뒤 이곳이 영구적인 그의 관저로 바뀌었다. 이 건물은 아치, 그릴과 발코니등 스페인풍의 장식으로 꾸며져 있다.

말라까냥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따갈로그어로 "may lakan diyan" (a Chief lives there)의 줄임말인 것으로 보여진다. 즉 높으신 분이 사는 곳이란 의미다. 이 궁은 스페인, 미국(19명의 스페인 총독, 14명의 미국총독이 거거), 필리핀의 행정수반(Manuel Quezon 초대 대통령을 포함하여 9명의 역대 필리핀 대통령들이 관저로 사용함.뿐만 아니라, 일본 점령기에는 일본군 사령관이 머물렀던 곳이다. 수년에 걸친 개축으로 지금 이궁은 고급 나무로 된 마룻바닥과 카펫, 크리스탈 샹들리에에다 수

많은 미술품들로 장식되어 있다.

마르코스 정권 당시에는 이 매혹적인 백색의 건물은 철저한 경비로 인해 오직 바깥에서 철문을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곳이기도 했다. 그의 20년 통치를 마감했던 1986년 2월 25일, 마르코스 가족들은 헬리콥터를 타고 하와이 망명길에 올랐다. 그들이 떠난 2시간 뒤, 환호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궁안으로 들어 가자 가난한 그들의 눈앞에는 상상을 초월한 사치와 호화로움이 펼쳐졌다. 그리고 반정도 먹은 상어알 요리가 마지막 순간의 다급함을 웅변해 주었다.

그 중에는 이멜다의 호화로운 침실과 욕실, 그리고 거기에는 프랑스에서 직접 주문해 만든 갈론들이의 향수병, 현재 "이멜다 백화점"으로 불려지고 있는 창고같이 큰 개인 물품보관소에는 유명 디자이너의 의류, 전자 제품, 가방과 가구들이 보관되어 있다. 아직도 가격표가 살 때와 같이 그대로 부착되어 있다. 또 다른 볼거리는 이멜다의 사치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것은 2,700여켤레의 구두들이다. 혁명의 마지막 단계에서 혁명에 가담한 군부의 위치와 마르코스의 마지막 방어선의 무기 준비상황을 표시한 검정색의 현황판이 마르코스가 마지막 순간까지 권력에 얼마나 집착했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또 최고의 장비가 갖춰진 응급실과 수술실은 마르코스가 최후의 순간까지 감추려고 했던 그의 건강이 어떠했는가를 보여 주는 징표가 되고 있다.

아퀴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녀는 이 궁을 "시민의 박물관"으로 선언했다. 현재 말라카냥궁은 박물관으로 기능에다, 내각회의의 공식장소로서의 국가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이 궁은 필리핀 예술과 문화를 보여 주는 전시실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마르코스의 모든 족적은 말끔히 제거됐다.

또 다른 볼거리중에는 아퀴노 대통령이 재직시 공식적으로 받은 선물을 모아 놓은 "대통령 선물 갤러리"와 옛날의 보물을 전시해 놓은 방이 있다.

물론 현 직무실인 본관은 (gate 1)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gate 6로 들어서면 입장료 50페소와 함께 소지품을 (특히사진기) 다 맡기고 통과할 수 있다.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별관 2층에 까지 안내되고 거기서 부터 역대 대통령들의 행적이나 업적을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사진도 걸려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직무시절에 수빅만에서 ASEM회의에 참석 한 사진도 걸려있다.

옛자 거리의 비폭력 시민운동의 생생함을 사진으로나마 만끽 할 수도 있다.

말라카냥궁을 관람하려면, 일반 입장료는 20페소, 안내자가 안내해 주는 관광은 250페소(평일에 수차례 있음), 관람시간은 목요일과 금요일은 12:00-15:00, 토요일에는 8:30-15:00

생존해날의 기록: 7월 21일 목요일 날씨 ()

(인상 깊은 내용을 이곳에 적어보자)

제 4일 (7월 22일, 필리핀 교육체험2)

라만 막사이사이 쿠바오고등학교

남녀공학인 학교로 학생수도 수천명이다. 남녀공학이며 교장은
페라도 박사이며 매우 신실한 사람이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Visiting Ramon Magsaysay Cubao High School

*Greeting ceremony

8:00am - 8:30am Flag Ceremony for the Philippines & Korea

8:30am - 10:00am Program

Welcome Remarks Dr. Josefina T. Perlado Principal IV

Acknowledgement Mr. HaSeon Hwang

* students' meeting: Culture exchange

Filipino Native Dance/Filipino Modern Dance

Korean Native Dance/Korean Modern Dance

Fil - Ko Taekwondo Exhibition



10:00 - 10:30am Classroom Meeting of Students and Teachers in
English, Science, and Math

10:30am - 12:00pm Break

>Lunch(12:00 pm - 1:00pm) Lunch @ AVR

1:00pm - 2:00pm Christian Songs

2:00-3:00 pm

*Discuss cooperative projects (and conference)

* 6 years journey to cooperate projects between Korean -Philippines

3:00 pm Farewell

넷째날의 기록: 7월 22일 금요일 날씨 ()

(친구들의 사인도 받아보고 메모도 남겨보자, 수업시간 소감을
적기도해보자)

제 5일(7월 23일, 필리핀 자연체험/봉사활동)

로스트에덴(Lost Eden)

바이오 리서치(Bio Research)사가 세운 로스트 에덴(Lost Eden)은 도심



생활에 지친 피로를 씻을 수 있는데다 자연 체험 학습장으로 좋은 곳으로 현지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다.

2007년도에는 20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요즘도 하루에 600명에서 1000 명의 방문객들이 다

녀갈 만큼 인기가 높다.

로스트 에덴은 파라나케 소재 수캇(Sucat)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잘 조성된 자연생태계로 다양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로스트 에덴 웰슨 양(Wilson Ang) 대표는 “로스트 에덴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연과 함께 배우고 익히는 새로운 개념의 공원”이라고 표현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에덴의 존재는 사라졌지만 이곳에서 교육과 즐거움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파라다이스가 숨쉬고 있다는 데 목적을 둔 것.

로스트 에덴의 큰 볼거리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피라루카’다. 피라루카는 세계에서 가장 큰 물고기에 속하는 종류 중 하나로 이곳에서 여유롭게 물속을 헤엄치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피라루카 외에도 수중생물 재배원에는 필리핀에서 보기 드문 다양한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

수중생물 재배원을 지나면 200년 동안 굳게 자리를 지킨 이름모를 나

무 한그루와 이태리풍의 분수대, 가지각색의 새들이 있는 중앙공원으로 들어선다. 가족들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거나 쉴 수 있는 쉼터로 안성맞춤인 중앙공원에는 말하는 앵무새가 있어 어린 방문자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로스트 에텐은 비둘기의 성지, 스모킹 마운 화산, 허니 하우스 갤러리, 채소 농장, 공룡 화석 관람 등 다양한 테마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이한 것은 방문자가 마음에 드는 동식물이 있다면 직접 구입해 키울 수 있다는 데 눈길을 끈다.

특히 벌꿀농장과 나비농장은 벌이 꿀을 만드는 과정이나 나비가 우화하는 과정 등을 아이들이 직접 관찰하고 자연스럽게 탐구력을 기르도록 했다.

로스트 에텐 웰슨 양 대표는 “로스트 에텐공원을 방문하는 모든 아이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입장료: 150페소, 영업시간: 오전 9시~오후 6시(월~토)

주소: 8362 Dr. A. Santos Ave., Sucat Paranaque City 1700 M.Manila Philippines

국제미작연구소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IRRI))

필리핀의 마닐라에 위치하며, 1960년에 설립되었음. 장·단기 환경변화와 사회경제적 이익에 대한 연구를 통한 쌀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국가 미작연구 강화 노력의 지원을 통한 미작 농민과 소비자 특히 저소득층의 현재 및 미래 세대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음.

다섯째날의 기록: 7월 23일 토요일 날씨 ()

(자신의 느낌을 적어보고 입장권 등도 붙여보자)

제 6일 (7월 23일, 필리핀 자연채험2)

빌라에스쿠데로 (Villa Escudero)

스페인 통치 당시에 필리핀의 귀족이었던 에스쿠데로 집안의 가업인 코코넛 농장으로 필리핀 북부에서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곳이며 현재 이 농장의 주인인 에스쿠데로 육군대령은 얼마 전 예편으로 코코넛농장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농장의 일부를 쿠데로 가문의 3대가 이어 오면서 필리핀 각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집해온 각종 진귀품과 150년 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천주교 장신구, 성물 등이 진열되어져 있으며 만 여 가지의 곤충과 동물, 파충류 박제품이 있고 필리핀 각 지방의 생활양식 표본이 준비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필리핀을 상징하는 동물인 물소(일명 카라바우?)가 끄는 마차를 타고 여행하는 코스가 있으며, 농업용으로 만들어진 인공호수에서 대나무로 만들어진 뗏목을 집집 저어 농장 안을 둘러볼 수 있는 일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공연장에는 주말이면 필리핀 각 지역의 특색을 나타내는 전 통춤 공연이 펼쳐지며, 인공폭포가 흐르는 냇물에 발 담그고 먹는 필리핀전통음식도 인상 깊습니다. VILLA ESCUDERO ESCUDERO 는 팍상한 폭포와 히든밸리에서 각각 30여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영장과 뗏목 타는 체험도 합니다.

다음 영문은 <http://www.villaescudero.com/> 에서 소개하는 정보다. 잘 읽어보자.

- Museum: The AERA Memorial Museum, founded by spouses Arsenio and Rosario Escudero, houses one of the largest collections in the country, unmatched in its eclectic diversity. Housed in a replica of a long-gone church in Intramuros with painted trompe-l'oeil ceilings, the present building opened for viewing in 1987. The core of the collection is its trove of

colonial religious art. The superbly executed silver altars, gilded carrozas, ivory santos, embroidered vestments and intricately carved images and bas-reliefs and tableaux, most dating from the Spanish colonial era are a testimony to the artistry and piety of the Filipino. Reflecting a lifetime of dedicated collecting and the wide-ranging interest of the Escudero couple, there are also extensive collections of Oriental ceramics, natural history and ethnographic dioramas, costumes, household furniture, weaponry and many other items of interest collected in their travels around the world.

- **Waterfalls Restaurant:** Lunch is served on bamboo dining tables set in a few inches of crystalline running water from the falls. The experience of dining on delicious local dishes with the sparkling waterfalls as a backdrop with clear spring water running over your feet is a truly singular and memorable experience only Villa Escudero can offer.
- **Philippine Experience Show:** After lunch, guests have the opportunity to watch the Philippine Experience Show where the country's rich culture comes to life, from its ethnic diversity to its colonial legacy. The dances were painstakingly recreated by the late National Artist for Dance Ramon Obusan of the Cultural Center of the Philippines. Mr. Obusan's insistence on authenticity sets this show, performed by resort employees and accompanied by the resort's own musicians and rondalla ensemble, makes this show a far cry from the stylized performances one sees today. (Fridays-Sundays/Holidays only)
- **Bamboo Rafts:** More educational and sports activities. Try

your hand at paddling a native bamboo raft on lake labasin.

- Rural Village Tour: Tour the rural village onboard a colorful jeepney or simply learn how coconuts are harvested.
- Birds: With close to 600 recorded bird species, 30% (181) found only in our islands, the Philippines has the highest rate of avifauna biodiversity per square kilometer in the world. Bird watching at the resort is adventure travel at its most relaxed. Wake up to the chorus of the resident orioles, mynahs, kingfishers, doves and fantails. Stroll around our gardens and meet the locals, like the Philippine Pygmy Woodpecker, Red-keeled Flowerpeckers or the Philippine Tailorbird. Head down to the Labasin waterfalls and observe the Indigo-banded Kingfisher as you lunch. These are just some of the 17 endemic species that have made the resort their home. From sunrise to sunset, sunbirds to owls, herons to swiftlets, a wide variety of birds fly around the area's lush gardens, orchards and open spaces. Bird List: (*표된 것은 Endemic to the Philippines(필리핀 텃새)): Grey Heron, Purple Heron, Great Egret, Little Egret, Little Heron, Cattle Egret, Black-crowned Night-Heron, Yellow Bittern, Cinnamon Bittern, Japanese Sparrowhawk, Grey-Faced Buzzard, Peregrine Falcon, Spotted Buttonquail *, Buff-banded Rail, Barred Rail, Ruddy-crested Crake, White-browed Crake, Plain Bush hen *, White-breasted Waterhen, Watercock, Common Moorhen, Greater Painted Snipe, Pintail Snipe, Oriental Practicole, Red Turtle Dove, Spotted Dove, Zebra Dove, Common Emerald Dove, Colasisi *, Philippine Coucal *, Lesser Coucal, Grass Owl, Philippine Scops Owl *, Island Swiftlet, Glossy Swiftlet, Pygmy Swiftlet

.Common Kingfisher, Indigo-banded Kingfisher *
 .White-throated Kingfisher .Collared Kingfisher .Spotted
 Wood-kingfisher * .Blue-throated Bee-eater .Blue-tailed
 Bee-eater .Philippine Pygmy Woodpecker * .Pacific Swallow
 .Barn Swallow .Pied Triller .Yellow-vented Bulbul .Philippine
 Bulbul * .Black-naped Oriole .Large-billed Crow .Elegant Tit *
 .Stripe-headed Rhabdornis * .Oriental Magpie-Robin .Pied
 Bushchat, Blue rock- Thrush .Golden Bellied Fly-eater .Arctic
 Warbler, Clamorous weed Warbler .Tawny Grassbird .Striated
 Grassbird .Philippine Tailorbird * .Grey-backed Tailorbird *
 .Bright-capped Cisticola .Grey-streaked Flycatcher .Mangrove
 Blue Flycatcher .Pied Fantail .Black-naped Monarch
 .Yellow-bellied Whistler .Grey Wagtail .White-breasted
 Woodswallow .Long-tailed Shrike .Brown Shrike .Glossy
 Starlings .Chestnut-cheeked starling .Crested Mynah
 .Olive-backed Sunbird .Purple-throated Sunbird .Bicolored
 Flowerpecker * .Red-keeled Flowerpecker * .Buzzing
 Flowerpecker * .Lowland White-Eye * .Eurasian Tree Sparrow
 .Scaly-breasted Munia .Chestnut Munia

여섯째날의 기록2: 7월 24일 일요일 날씨 ()

(보고 느낀 것들을 담아보자.)

제 7일(7월 25일, 필리핀 역사체험/귀국의 날)

리잘공원: 마닐라베이 끝자락에 인접해 있는 10만평 규모의 공원으로 호세 리잘이 처형된 장소에 그를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공원이다.(초승달 모양을 하고 있어 루네타파크(Luneta Park)라고도 불림)

이 공원내에는 12m 높이의 리잘 기념탑이 있으며 국경일이나 외빈 방문시 헌화행사등이 개최되는 필리핀의 상징적인 곳이다.

자~ 그럼 호세 리잘은 누구??

단순한 옛 사건의 발생지, 국민 영웅의 동상, 잘 가꾸어진 공원으로 생각 될 지 모르지만, 우리와 같은 식민의 경험이 있었던 곳이며, 그 당시 필리핀 사람들의 항쟁의 중심지, 지금은 마닐라 시민들의 안식처인 리잘공원을 산보삼아 돌아보자.

나의 마지막 작별	Last Farewell
호세 리잘	Jose Riza
	I
잘있거라 내 사랑하는 조국이며	Farewell, dear Fatherland, clime of the sun
태양이 감싸주는 동방의 진주여	caress'd,
잃어버린 에덴이며	Pearl of the Orient seas, our Eden lost!
나의 슬프고 눈물진 이 생명을	Gladly now I go to give thee this faded life's
너를 위해 바치리니	best.
이제 내 생명이 더 밝아지고 새로워지리니	And were it brighter, fresher, or more blest,
나의 생명 마지막 순간까지	Still would I give it thee, nor count the cost.
너 위해 즐겁게 바치리	
형제들이여, 그대는 한 올의 괴로움도	On the field of battle, 'mid the frenzy of light,
망설임도 없이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Others have given their lives, without doubt or
아낌없이 생명을 바쳤구나	heed;
월계수 백화꽃 덮인 전나무관이거나	The place matters not - cypress or laurel or lily
교수대거나 황량한 들관인들	white.
조국과 고향을 위해 생명을 던졌다면	Scaffold or open plain, combat or martyrdom's
그게 무슨 상관이라	plight,
	'Tis ever the same, to serve our home and
	country's need.

어두운 밤 지나고

동녘에서 붉은 해 떠오를 때
그 여명 속에 나는 이 생명 마치리라
그 새벽 희미한 어둠 속
작은 불빛이라도 있어야 한다면
나의 피를 흘뿌려
어둔 새벽 더욱 밝히려라

나의 어린 시절이나
젊은 혈기 넘치는 지금이나
나의 소망 오직
동방의 진주 너를 흠모하는 것
검고 눈물 건진 너의 눈
한 점 꾸밈도 부끄럼도 없는
티없이 맑고 부드러운 눈
동방의 진주 너를 바라보는 것이었노라

이제 나는 너를 떠나야 하는구나
모든 즐거움과 절실한 열망을 버리고
아 너를 위해 가슴 속에서 우리나라
만세 만세를 부르노라
우리에게 돌아올 최후의 승리를 위해
나의 죽음은 값지리니
네게 생명을 이어주기 위해
조국의 하늘 아래 숨겨두어
신비로운 대지에 영원히 잠들리니
아 행복하여라

먼 훗날 잡초 무성한 내 무덤 위에
애처로운 꽃 한 송이 피었거든
내 영혼에 입맞추듯 입맞추어다오
그러면 차가운 무덤 속
나의 눈썹 사이에
너의 파스한 입술과 부드러운 숨소리 느끼게
되리니
부드러운 달빛과 파스한 햇빛으로
나를 비쳐다오
내 무덤가에 시원한 술바람 불게 하고
파스하게 밝아오는 새 빛을 보내다오

I die just when I see the dawn break,
Through the gloom of night, to herald the day;
And if color is lacking my blood thou shalt take,
Pour'd out at need for the dear sake,
To dye with its crimson the walking ray.

My dreams, when life first opened to me,
My dreams, when the hopes of youth beat high,
Were to see thy lov'd face, O gem of the Orient
sea.
From gloom and grief, from care and sorrow
free;
No blush on the brow, no tear in thine eye.

Dream of my life, my living and burning desire,
All hail ! cries the soul that is now to take
flight;
All hail ! And sweet it is for thee to expire,
To die for thy sake, that thou mayst aspire,
And sleep in thy bosom eternity's long night.

If over my grave some day thou seest grow.
In the grassy sod, a humble flower,
Draw it to thy lips and kiss my soul so,
While I may feel on my brow in the cold tomb
below
The touch of thy tenderness, thy breath's warm
power.

Let the moon beam over me soft and serene,
Let the dawn shed over me its radiant flashes,
Let the wind with the sad lament over me keen;
And if on my cross a bird should be seen,
Let it trill there its hymn of peace of my ashes.

Let the sun draw the vapors up to the sky,
And heavenward in purity bear my tardy protest;
Let some kind soul o'er my untimely fate sigh,
And in the still evening a prayer be lifted on

작은 새 한 마리	high
내 무덤 십자가에 날아와 앉으면	From thee, O my country, that in God I may
내 영혼 위해 평화의 노래를 부르게 해다오	rest.
불타는 태양으로 빗방울 증발시켜	
나의 함성과 함께 하늘로 돌아가게 해다오	Pray for all those that hapless have died,
너무 이른 내 죽음을 슬퍼해다오	For all who have suffered the unmeasur'd pain;
어느 한가한 오후	For our mothers that bitterly their woes have
저 먼 저승의 나 위해 기도해다오	cried,
아 나의 조국	For widows and orphans, for captives by torture
내 편히 하늘나라에 쉬도록 기도해다오	tried;
	And than for thyself that redemption thou mayst
불행히 죽어간 형제들을 위해	gain.
기도해다오	
건디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죽어간 이들을	And when the dark night wraps the graveyard
위해	around,
기도해다오	With only the dead in their vigil to see;
고난 속에 눈물짓는 어머니들을 위해	Break not my repose or the mystery propound,
기도해다오	And perchance thou mayst hear a sad hymn
감옥에서 고문으로 뒹구는 형제들	resound;
남편 잃은 여인들과 아이들을 위해	'Tis I, O my country, raising a song unto thee.
기도해다오	
.....	
내 무덤가 십자가 비석도 잊혀져 가면	When even my grave is remembered no more,
삽으로 밭을 일귀	Unmark'd by never a cross or a stone;
내 무덤에서 시신의 재를 거두어	Let the plow sweep through it, the spade turn it
조국 온 땅에	o'er
골고루 뿌려다오	That my ashes may carpet thy earthy floor,
	Before into nothingness at last they are blown.
내 영원히 사랑하고 그리운 나라	Then will oblivion bring to me no care;
필리핀이여	As over thy vales and plains I sweep;
나의 마지막 작별의 말을 들어다오	Throbbing and cleansed in thy space and air,
그대들 모두 두고 나 이제 형장으로 가노라	With color and light, with song and lament I
내 부모, 사랑하던 이들이여	fare,
저기 노예도 수탈도 억압도	Ever repeating the faith that I keep.
사형과 처형도 없는 곳	
누구도 나의 믿음과 사랑을 사멸할 수 없는	My fatherland ador'd that sadness to my sorrow
곳	lends,
하늘나라로 나는 가노라	Beloved Filipinas , hear now my last good-bye !
	I give thee all; parents and kindred and friends;
잘있거라, 서러움 남아 있는	For I go where no slave before the oppressor

나의 조국이며 사랑하는 여인이여 어릴 적 친구들이여 이 괴로운 삶에서 벗어나는 안식에 감사하노라. 잘있거라 내게 다정했던 나그네여 즐거움 함께했던 친구들이여 잘있거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아 죽음은 곧 안식이니.....	bends, Where faith can never kill, and God reigns e'er on high ! Farewell to you all, from my soul torn away, Friends of my childhood in the home dispossessed ! Give thanks that I rest from the wearisome day ! Farewell to thee, too, sweet friend, that lightened my way; Beloved creature all, farewell ! In death there is rest ! * 원래 이시는 스페인어로 쓰여진 것을 Charles E. Derbshire씨가 영역한 것을 옮겼다. 이 영역 본이 현재 가장 많이 읽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영역된 것은 28개나 넘는다. 그리고 이시는 원래 시의 제목도 없고 작가인 호세리잘의 서명도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던 것을 필리핀인 신부이자 애국자였던 Mariano Decanay씨가 Ultimo Adios(Last Farewell)라는 제목을 붙였다. 일반적으로 Mi Ultimo Adios(My Last Farewell)라는 제목을 쓰 기도 하나 여기서는 그냥 Ultimo Adios로 쓴다. 이 시는 1898년 9월 25일자 La Independencia(독 립)이라는 신문에 맨처음 실렸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칭하는 호세 리잘 박사라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본다. 그는 의사(영 어로 doctor)였지 박사라고 불릴 수 있는 학위를 받지 못했다. 아마 영어의 의사를 번역하는 과 정에서 박사로 잘못 번역된게 아닌가 싶다.
--	--

민족의 영웅, 호세 리잘(Dr. Jose Rizal)

1. 들어가며

필리핀 여행 안내서에는 어김없이 리잘 공원이 나온다. 그곳이
“마닐라 시내 중심에 위치해 있고 식민지 시대 스페인에 저항한

영웅 호세 리잘이 처형된 곳”이라고 안내한다. 그러나 정작 리잘에 관한 자료들은 다양한 백과사전이나 인명사전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필리핀의 문학자, 과학자, 시인, 언어학자, 조각가, 화가, 음악가. 안과 의사, 낭만주의적이며 열정적인 국가 영웅--아테니아와 조국의 순교자이며 총명한 지식인 호세 리잘은 1896년 12월 30일 이른 아침, 스페인 소총분대에 의해 총살되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300년 이상 지속된 스페인 식민 지배를 종식시킬 필리핀 무장혁명에 뜨거운 불을 당겼다.

압박받는 동포에게 희망과 투지를 심어주고 스페인 식민통치자들과 수도사들에게는 위협의 칼이 되었던 필리핀의 젊은 의사는 왜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죽어야 했던가?

2. 출생에서 의사까지

호세 프로타쇼 리잘 메르카도(Jose Pritacio Rizal Mercado)는 1861년 6월 19일, 라구나주의 칼람바 작은 마을에서 아버지 프란시스코 메르카도와 어머니 테오도라 알론소의 2남 9녀중 7번째로 태어났다. 리잘의 아버지는 중국계 필리핀 설탕 경작자로서 칼람바 최초의 석조가옥을 소유할 정도로 부유했다. 그의 도덕적 지적 성장은 어머니 테오도르 알란조와 가톨릭 교회에서 강하게 영향 받았다. 그는 2살때 알파벳을 익히고 세살 때는 누이들의 그림책을 읽을 정도로 영민했다.

1872년 6월 11살에 리잘은 주안 데 레트란 대학 입학시험을 무난히 통과했으나 약관 11살에다 병약하고 왜소하다는 이유로 입학을 거절당했다. 부르고스의 중재로 그는 마지못해 아테니오에 입학한

다. 스페인 정부에 의해 세워지고 후에 예수회가 아테니오는 당시 다른 대학보다는 나왔다. 그 학교는 엄격한 훈련과 종교적 가르침으로 학생들을 수련시켰고 정규과정 외에도 농업, 상업과 기계 등 기술과정도 있었다. 일과가 시작될 때 학생들은 미사에 참석했고 모든 교육은 수사들이 했다. 입학 당시 바깥세상을 모르는 신참인 그는 학급의 가장 낮은 위치에서 한달 후에는 가장 우수한 학생이 되었다. 급우들과 잡담하고 노는 동안에도 그는 스페인어를 공부하기 위해 산타이사벨 대학에서 개인교수를 받았다.

리잘은 책벌레만은 아니었다. 그는 스페인 문학과 자연과학 과정을 포함한 여러 상류 단체에 가입했으며, 여가 시간 동안 산체스의 지도 아래 문학적 재능을 길렀다. 문학 외에도 리잘은 조각과 그림의 재능을 길렀으며 스페인 화가 아구스틴 사에즈와 필리핀 조각가 로무알도 데 헤수스의 지도를 받았다. 한 예수회 수사가 리잘의 재능에 감명 받아 예수 성심상을 조각하도록 요청하자 리잘은 수일 후 그것을 그에게 선물했다. 그후 아테니아 학생들은 조각상을 기숙사 문간에 두었고, 그것은 거의 20년 동안 졸업생중 가장 위대한 학생인 호세 리잘을 회상시키면서 자리를 지켰다.

16세에 아테니아를 우수하게 졸업한 리잘은 문학사 학위를 받은 후 산토 토마스 대학에서 의학공부를 시작했다. 그는 시와 미술 분야에도 관심이 많았고 동시에 아테니오의 기술 과정에도 다녔다. 그 무렵 리잘은 라 콘코르디아 대학에 재학중이던 레오노르 리베라라는 여학생과 사랑에 빠졌고 둘은 결혼을 약속했다.

1882년 21세의 리잘은 의학공부를 지속하기 위해 스페인으로 갔다. 24세에는 철학과 문학박사 학위를 받고 마드리드 중앙대학교로 돌아와 의사 자격을 받았다. 그는 파리,하이델베르크, 라이프찌히, 베를린, 비엔나 등의 대학들에서 민족학, 인류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

야의 공부를 계속하면서 유럽을 광범위하게 여행했다. 한달동안에 걸친 여행 중에도 리잘은 빠지지 않고 여행 중 방문한 나라와 그 나라 사람들에 관해 일기를 썼다.

3. 두 권의 소설, 혁명의 초석

스페인에서 뛰어난 학생이었던 그는 곧 필리핀 유학생 단체의 지도자가 되었고 조국에 대한 스페인 통치의 개혁에 힘썼으나 독립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는 개혁의 최대의 적은 혁명을 꾀고 있던 스페인이 아니라 정치·경제면에서 필리핀을 마비상태에 빠뜨린 몇몇 필리핀내 예수회 수도회의 수사들이라고 보았다.

파리와 하이델베르크에서 의학 공부를 계속하던 그는 1887년 베를린에서 타갈로그어로 쓴 [나에게 손대지 마라 Noli me tangere]라는 첫 번째 소설을 발표했다. 그 소설은 스토크부인의 "툼아저씨네 오두막"과 비교될 만큼 식민정권과 스페인 성직자들의 죄악을 드러내는 신랄한 것이었다. 놀리 메 땅헤레(Noli me tangere)는 라틴어로 나를 건드리지 마라는 뜻이다.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나아갈 준비가 안 되었으니 나를 건드리지 마라"고 한 요한복음서 구절에서 인용되었다. 리잘은 소설 속에서 "문제들은 워낙 예민해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라고 말한다. 즉 스페인이 필리핀을 좌지우지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담고 있다. 필리핀의 서사적 역사를 드러낸 이 소설은 19세기와 20세기 필리핀에서 가장 정치적 영향을 미친 소설로 자리 잡았다.

이 소설의 대중성은 소설이 씌어졌던 질곡의 시기를 반영한데 기인한다. 이 소설이 동시대의 소설, 드라마, 오페라, 댄스, 영화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정치 인식에 미친 영향은 당시뿐 아니라 그 후로

도 엄청난 것이었으며 생생한 등장인물과 험난한 상황의 묘사는 오늘날도 여전히 심금을 울린다.

1890년에는 안토니오 모르가의 [필리핀의 역사 Sucesos de las Islas Filipinas]의 주석판을 내어 필리핀이 스페인의 지배가 있기 전부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었고, 1891년에는 첫 번째 소설의 속편에 해당하는 [체제전복: El filibusterismo]을 겐트와 벨기에에서 출판했다. 우회적이고 폭력적인 하나 박해자와 싸우는 필리핀인의 처참한 이야기를 통해 그는 통치자들의 포악함을 묘사했다. 이 소설을 통해 그는 필리핀 개혁운동의 대변자로서 명성을 다진 반면 스페인 통치자들의 공격을 유발했고 소설은 금서로 지목되었다. 그는 이 소설을 스페인 당국에 의해 처형된 세명의 필리핀 신부 부르고스, 고메스와 자모라 신부에게 바쳤다.

리잘은 귀국하지 말라는 가족과 친구들의 권유를 뿌리치고 마닐라로 돌아온다. 고향 집에 머물면서 의술을 연마하는 동안 농지 임대료는 계속 인상되어 소작농인 필리핀인들은 굶주렸다. 반면 스페인 수사들은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해 가자 농부들을 선동해 농지 임대료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를 주도하면서 스페인 신부들의 눈에 목엿가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걱정한 가족들은 그에게 유럽으로 되돌아갈 것을 권유했고 5개월간 고향에 머문 후 그는 다시 유럽으로 떠난다. 스페인으로 가기 전 잠시 영국에 머무는 동안 스페인 수사들이 그의 형과 매형들의 땅을 빼앗았으며 수많은 필리핀인들이 스페인 당국에 반대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투옥되었음을 알게 된다.

스페인에 도착한 후 리잘을 위시한 몇 명의 필리핀 지식인들은 '라 솔리다리다드'라는 신문을 창간한다. 그레시아노 로페즈 제나, 마르셀로 델 피랄, 마리아노 폰스, 안토니오 루나, 리잘 그리고 질

친한 그의 친구 블루멘트리 등이 창간에 관여했다. 그는 필리핀 국민을 변호하는 수많은 기사와 사설을 신문에 실었으며, 스페인 정부가 필리핀 국민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면 필리핀 국민은 독립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리잘은 고국으로부터 다시 가슴 아픈 소식을 듣는다. 매형 중 한 명이 사망했는데 교회가 기독교식 장례를 치르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 형 파시아노를 비롯한 다른 형제들이 필리핀 남쪽 섬으로 유배되어 갔다는 것, 당국이 칼람바 사람들의 집과 농토를 빼앗고 그들을 몰아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자 친구였던 레오노르 리베라가 한 영국인과 결혼했다는 소식도 듣는다. 그는 일기에 '전쟁터는 바로 필리핀이다'고 썼다.

4. 유배와 처형

1892년 그가 귀국하자 스페인 당국은 그를 체포할 기회를 노린다. 그는 곧 몇몇 친구들과 '라 리가 필리피나(La Liga Filipina)'라는 비폭력 개혁단체를 결성하고 '라 리가 필리피나'가 필리핀 국민들을 단합시킬 것이라고 연설한다. 스페인 당국은 그의 영향력을 두려워한 나머지 3일 후에 그를 체포하여 산티아고 요새 감옥에 투옥하고 얼마 후 1892년 7월 민다나오섬의 다피탄으로 유배한다.

4년의 유배기간 동안에도 그는 주어진 시간을 활용했다. 연구를 하는 동시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에게 모국어와 영어, 스페인어, 측량술 등 직업기술과, 회화와 조각 등을 가르쳤다.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폭포수가 딸린 수영장도 만들었다. 아이들은 리잘의 농장 일을 도우며 무료로 교육받았다. 그는 진료소를 차리고 환자들을 돌보았다.

환자들 중 리잘에게 많은 돈을 치료비로 주었던 어떤 부유한 사람에게 조세핀 브라켄이란 딸이 있었는데 리잘은 조세핀과 사랑에 빠졌다. 그녀는 아버지가 홍콩으로 돌아간 뒤에도 다피탄에 머물렀다.

리잘은 자유를 갈망했다. 그는 스페인 총독 블랑코에게 자원의사 자격으로 쿠바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편지를 썼고 7월 30일 총독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그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것 같았다.

그러나 리잘이 다피탄으로 유배되어 갔다는 소식에 분노한 사람들 중 그의 저작에 감명 받았던 안드레오 보니파시오는 친구들과 함께 '까띠푸난'을 결성한다. 까띠푸난은 무장혁명을 통해 필리핀을 해방시키려는 비밀 결사였다. 그가 쿠바로 여행하던 1896년, 까띠푸난은 드디어 폭동을 일으켰다. 리잘은 그 단체와 무관했지만 기회를 노리던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다. 스페인 당국은 그를 재판에 회부하고 폭동을 선동했다는 죄목으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리잘은 반란죄 명목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마지막까지 무고함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질리 만무했다. 그는 친구 블루멘트리트에게 독어로 편지를 썼다. “오늘 7시에 나는 총살당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반란에 무관하다.” 형 파시아노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그는 썼다. “형, 나는 이 반란에 무고한 채로 죽을 것이라 확신해.”

5. 마지막 안녕

1896년 12월 30 이른 아침 몇 명의 구경꾼들이 팔라시오 광장에서 있었다. 총검을 꽂은 네 명의 군인이 진격자세를 취했고 몇 미터 앞에는 양팔굽을 묶인 리잘이 한손에 묵주를 들고 있었다. 그 곁에는 형 집행자가, 다른 곁에는 두 명의 예수회 수사가 있었다. 그 뒤에는 더 많은 군인들이 행진하고 있었다. 구경꾼들은 바굽바

이안의 조종이 울리는 오싹함을 느꼈다. 아테니오 대학 앞에 행렬이 열병했을 때 그는 벽 위로 솟은 대학의 탑들을 보았다. 그는 수사 중 한 사람에게 그가 인생의 7년이란 세월을 거기서 허비했다고 속삭였다. 그 7년의 세월이 그의 뇌리를 스쳐갔다.

아침 7시, 죽음을 알리는 북소리가 대기를 두드리고 북소리 위에 날카로운 발사명령이 떨어지자 소총분대의 총들이 짙어졌다.

필리핀 독립운동의 태양은 그로부터 두해 후인 1898년, 에밀리오 아귀날도 장군이 그의 집 발코니에 필리핀 국기를 내 건 순간 떠올랐다.

처형되기 전날 오후 3시반경 그는 감방에서 Mi Ultimo adios(내 마지막 안녕)를 썼다. 그것을 취사용 곤로 속에 숨겼다가 누이 트리니다드에 건네주었다. 운명의 날 아침 5시에는 그가 사랑한 여인 조세핀 브라켄이 오자 리잘의 요청으로 발라구에르는 그들을 결혼시켰다. 헤어지면서 리잘은 조세핀에게 토마스 캠퍼스의 책(“그리스도를 본받아”일 듯)에 헌사를 써 건네주었다. “내 사랑하는 불행한 아내 조세핀에게.....”

당대 스페인 시문학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그의 Mi Ultimo adios(내 마지막 안녕)는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열정을 담고 있다.

그는 죽기 전에 말했다. “나는 작은 빛을 느낀다. 그것은 내가 동포들에게 보여줄 나의 임무임을 믿는다”

열심히 살며 헌신적으로 사랑했고, 관대하게 자신을 내어주었던 사람-공평한 권리와 교육과 자유를 소망하는 비폭력 혁명의 주창자로, 위대한 필리핀인으로 존경을 받는 호세 리잘의 생은 너무도 짧아서 더 눈부시게 빛난다.

인트라무로스(INTRAMUROS) - 산타아고 요새, 리잘 박물관, 마닐라대성당

인트라무로스는 16세기에 스페인이 필리핀 통치의 근거지로 삼았던 성채도시로서 스페인사람들이 살기에 필요한 것(성당, 요새 등)들이 모두 구비된 도시이다. 과거에는 사회 지배층인 스페인인과 스페인 혼혈계만이 인트라무로스 내에서 살 수 있었다.

비록 지금은 2차 세계대전 폭격으로 흔적만 남아 있지만, 산타아고요새는 인트라무로스 내 스페인 군사요새로서 북쪽의 Pasig 강을 내려다보는 요충지에 자리잡았으며,(현재는 강넘어 차이나타운이 한눈에 보인다), 1571년 목조로 축조 되었다가 석조 요새로 재건축되었다.

그 당시의 스페인에 반역한 필리핀의 국민 영웅들을 감금했던 처참한 지하 감옥이 아직도 있으며, 필리핀 국민 영웅리살을 기념한 기념관(호세 리잘박사의 유품과 필리핀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되었던 방들을 볼 수 있다.)이 있다. 넓은 인트라무로스를 돌아보고 지치면, 성 안과 밖으로 다니는 마차를 타보자.

성의 안과 밖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성축조 양식에서 빠지지 않는 해자(옹덩이를 파고 물은 채워 넣어서 만든 물길로 성의 방어수단으로 사용)가 있는데, 성의 밖은 아직도 존재하며, 안쪽의 해자는 물이 흐리지 않고 가두어 두고 있어서 말라리아 등 모기의 산란처로 이용된다고 매립해 버렸다고 한다.

인트라무로스 내의 감옥에서부터 리잘공원 안쪽에는 호세 리잘의 처형 당시, 두 발목이 쇠사슬로 묶인 상태로 걸어갔던 길에 발자국 모형을 남겨두었다. 이 동판은 호세 리잘의 감옥에서부터 처형장까지 연결되어 있다. 필리핀 역사를 돌아볼겸 쭉 둘러보자

인트라무로스 내 로마광장 이라 불리는 광장에 1581년에 세워진 마닐라 대사원은 스페인 통치의 유산중 하나이다. 카톨릭 포교에

큰 역할을 해냈고 화재와 태풍, 지진등으로 수차례 파괴되어졌다가 1958년에 로마 카톨릭의 도움을 받아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매주 일요일에 가면 부유층들의 화려한 결혼식(필리핀 모든 사람들의 꿈이라고 표현되는 마닐라 대성당에서의 결혼식)과 미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다.

나용 필리피노(Nayong Pilipino) : 'Philippine Village'라는 뜻의 나용 필리피노는 필리핀의 민속촌이다. 45만㎡의 넓은 공원에 필리핀 각 지방의 전통 가옥과 자연, 유명 관광명소가 축소된 형태로 전시되어 있다.

그러나 전통 가옥 내부는 기념품과 특산품을 판매하는 곳이어서 각 지역 특유의 생활모습을 살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면 조금은 실망할지 모른다. 공원 중앙의 커다란 연못에서는 보트를 타고 더위를 식힐 수 있으며 이밖에 필리핀 인형 박물관, 수족관, 새장, 열대식물 정원, 필리핀 민속 박물관 등 볼거리가 다양하다. 공원 전체를 다 돌아보는데 약 2시간이 걸리는데 무료 셔틀 지프니가 운행되며, 개관시간은 월~금요일은 07:00~18:00 (주말은 19:00까지)이며 입장료 40페소이다.

이하우이하우: 마닐라 시내의 호텔에서 USD \$ 1~3, 입장료는 별도로 없으며, 음식 요금은 1인 \$ 15 미만이면 즐거운 밤을 보낼 수 있다. 음식은 특별히 추천할 만한 거 없다. 여긴 맛집이 아니라 멋집이다. 유쾌한 멋집. 마닐라에서 유명한 식당이기도하다. 마닐라 시내에 위치함. 호텔주변에서 택시를 타고 월드트레이드센터 건너편에 있는 이하우이하우 식당으로 가자고 하면 된다. 통돼지 바비큐와 스페셜메뉴(씨푸드와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등 혼합) 등.

마닐라공항에서 출국

오후 3시 25분발 비행기다.

공항에는 12시경 이전에 도착할 것이다. 짐을 잘 챙기고 돌려받은 여권도 잘 챙기자. 귀국을 준비하며 조용하게 정리하는 시간이다.

창밖으로 스치는 구름을 보고 있노라면 구름 위의 산책, 혹은 설원을 달리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

일곱째날의 기록2: 7월 25일 월요일 날씨 ()

(보고 느낀 것들을 담아보자.)

You Raise Me Up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내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괴로움이 밀려와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당신이 내 옆에 와 앉으실 때까지	
Until you come and sit awhile with me	나는 여기에서 고요히 당신을 기다립니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나는 산에 우뚝 서 있을 수 있고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나는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습니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당신이 나를 떠받쳐 줄 때 나는 강인해 집니다.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당신은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합니다.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나는 산에 우뚝 서 있을 수 있고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나는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습니다.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당신이 나를 떠받쳐 줄 때 나는 강인해 집니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당신은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합니다.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And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나는 산에 우뚝 서 있을 수 있고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나는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떠받쳐 줄 때 나는 강인해 집니다.	
	당신은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합니다.	

*우리의 친구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알고 있는 한 마디

Korean	English	Philipino (Tagalog)
• 안녕하세요?(아침)	• Good Morning!	• Magandang umaga!
• 안녕하세요?(점심)	• Good afternoon!	• Magandang hapon!
• 안녕하세요?(오후)	• Good evening	• Magandang gabi!
• 예	• Yes	• Ooo
• 아니오	• No	• Hindi
• 당신의 이름은?	• What is your name?	• Ano ang iyong pangalan?
• 나는 _____입니다.	• My name is _____	• Ako ay si _____
• 어디서 왔습니까?	• Where are you from?	• Taga saan ka?
• 한국에서 왔습니다.	• I am from Korea.	• Ako ay taga Korea.
• 감사합니다.	• Thank you.	• Salamat.(po)
•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 Where is the rest room?	• Saan Po ang banyo?
• 얼마입니까?	• How much is this?	• Makano po ito?
• 이 장소는 뭐라고 합니까?	• What is this place called?	• Ano po ang tawag sa lugar?
• _____로 데려가주세요.	• Please take me to _____	• Pwede nyo po ba akong_____
• 이 금액을 페소로 바꿔주세요.	• I would like to exchange this amount to pesos.	• Gusto ko magpapalit sa pesos.
• 가장 가까운 공중전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 Where is the nearest phone booth?	• Saan po ang pinakamalapit.
• 몇 시입니까?	• What time is it?	• Anong oras na po?

*필리핀어를 사용하면 친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간당 우마가[하폰, 가비]” 등은 기억해두면 좋은 인사입니다. 그리고 “살라맛”은 자주 쓸수록 좋은 말입니다.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blue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is a vertical margin line on the left side, creating a narrow left margin. The paper appears to be from a notebook or a standard ruled document.

This image shows a single page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blue or grey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is no handwriting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Sketch n Sketch

Sketch n Sketch

여행기, 스케치 및 사진 콘테스트

여러분, 여행은 어떠셨는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참가자 여러분을 대상으로 여행기와 사진 콘테스트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진 :

-내용: 국제교류 방문 여행 중 담은 사진 2장 이상(파일로 올릴 것) -크기: 1280*960픽셀이상 JPG파일. 학교축제에서 전시할 것이므로 큰 사이즈로 제출,

-올리는 곳: 학교홈페이지 사진콘테스트방

-제출 기한: 8. 20일까지

-시상은 학교장상으로 USB메모리стик 등 다양한 상품을 수여할 것임.

2. 방문기

-크기: A4용지 2장 내외(10포인트 신명조), 영문 또는 한글

-여백: 한글 기본 여백

-제출할 곳: 학교홈페이지 또는 지정 게시판

-제출 기한: 8. 20일까지

-시상: 1~3위 시상하고 영문 작성 글의 경우 제 6회 국제 온라인 콘테스트 에세이분야에 자동 출전함.

3. 스케치 콘테스트

방문 기간 동안 스케치한 풍경 등을 대상으로 함.

-크기: A4용지 이상

-제출기한: 여름방학 종료 후 3일 이내

-제출할 곳: 황하선(구봉중) 또는 장민정선생님(충덕중)

-시상: 1~3위 시상

문의: cafe.naver.com/jinnam04 mushroom4u@naver.com

참고사이트: <http://ictmsn.org>

초청장 사본



Republic of the Philippines
Department of Education
National Capital Region
Division of City Schools
NOVALICHES HIGH SCHOOL
Quezon City, District II, Metro Manila



July 1, 2011

JEONG OK KIM
School Principal
Yeosugubong Middle School
Republic of Korea

Sir:

In behalf of the students, teachers and parents of Novaliches High School in Quezon City, Philippines, your partner school, we would like to invite you, together with the School Principal of Chungdeok Middle School, Bokkwon Kim, leader Mr. Haseon Hwang, school leader of APEC ICTMSN and Chair of Online Education Forum, Teacher Hangmi Kim, and 26 of your finest students. We are also inviting Officer Gyeonghui Hyeon, of Cheungdok Middle School and 22 of their finest students, to visit our school on July 19 to 25, 2011 for us to personally interact with one another on school management, teacher conference, ICT partner school discussion and renewal of our friendly cooperation for the last 7 years.

We will be honored to present also our culture through songs, dances and history.

We will be looking forward for your incoming visit to our beautiful country, the Philippines.

Very truly yours,


MARIA NOEMI M. MONCADA, Ed.D., LIB.
Principal IV
APEC Model School Network Coordinator
In the Philippines



Republic of the Philippines
Department of Education
National Capital Region
Division of City Schools
NOVALICHES HIGH SCHOOL
Quezon City, District II, Metro Manila



July 1, 2011

BOKKWON KIM
School Principal
Chungdeok Middle School
Republic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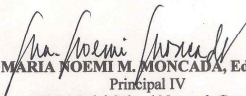
Sir:

In behalf of the students, teachers and parents of Novaliches High School in Quezon City, Philippines, your partner school, we would like to invite you, together with the School Principal of Yeosugubong Middle School, Jeong Ok Kim, leader Mr. Haseon Hwang, school leader of APEC ICTMSN and Chair of Online Education Forum, Teacher Hangmi Kim, and 26 of your finest students. We are also inviting Officer Gyeonghui Hyeon and 22 of your finest students from Chungdeok Middle School, to visit our school this July 19 to 25, 2011 for us to personally interact with one another on school management, teacher conference, ICT partner school discussion and renewal of our friendly cooperation for the last 7 years.

We will be honored to present also our culture through songs, dances and history.

We will be looking forward for your incoming visit to our beautiful country, the Philippines.

Very truly yours,


MARIA NOEMI M. MONCADA, Ed.D., Lib.
Principal IV
APEC Model School Network Coordinator
In the Philippines



Republic of the Philippines
Department of Education
National Capital Region
Division of City Schools
NOVALICHES HIGH SCHOOL
Quezon City, District II, Metro Manila



July 1, 2011

HASEON HWANG
School Leader of APEC ICTMSN
Chair of Online Education Forum
Chungdeok Middle School
Republic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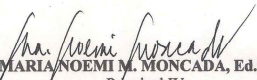
Sir:

In behalf of the students, teachers and parents of Novaliches High School in Quezon City, Philippines, your partner school, we would like to invite you, together with the School Principal of Yeosugubong Middle School, Jeong Ok Kim, Bokkwon Kim, School Principal of Chungdeok Middle School, Teacher Hangmi Kim, Officer Gyeonghui Hyeon and 48 of your finest students from both schools to visit our school this July 19 to 25, 2011 for us to personally interact with one another on school management, teacher conference, ICT partner school discussion and renewal of our friendly cooperation for the last 7 years.

We will be honored to present also our culture through songs, dances and history.

We will be looking forward for your incoming visit to our beautiful country, the Philippines.

Very truly yours,


MARIA NOEMI M. MONCADA, Ed.D., L.I.B.
Principal IV
APEC Model School Network Coordinator
In the Philippines

Anak - Freddie Aguilar

아낙 - 프레디 아길라

필리핀의 국민가수로, 아시아의 유명한 가수가 부른 노래다.

Nu'ng isilang ka sa mundong ito
 늑 이 썰라웅 카 썸 문 동 이 또
 Laking tuwa ng magulang mo
 라 킵 또와 냥 마 꿀 랑 모
 At ang kamay nila ang iyong ilaw
 앓 앙 카마 이 닐라 앙 ~ 용 닐 라
 우
 At ang nanay at tatay mo'y
 아 당 나나이 앓 다따이 모이
 'Di malaman ang gagawin
 디 말라만 앙 가거윈
 Minamasdan pati pagtulog mo
 냐 마스 판 뵈 떠 뵈 투르 모
 Sa gabi'y napupuyat ang iyong
 nanay
 싸아다비이 나 뿌뿌얏 따끄 용 나
 나이
 Sa pagtimpla ng gatas mo
 뵈뵈뵈 뵈라 냥 가 타스 모
 At sa umaga nama'y kalong
 싸 우 마가 나 마이 칼 롱
 Ka ng iyong amang tuwang-tuwa
 sa iyo
 카 늑 용 아망 왕 투와 리 싸 요
 Ngayon nga'y malaki ka na
 으이 용 가이 말라 키 카 나
 Nais mo'y maging malaya
 나이스 모 이 마 킵 말라야
 'Di man sila payag
 디 만 실라 빠
 Walang magagawa
 여뵈려뵈 까가마
 Ikaw nga ay biglang nagbago
 이까우 나 이 빅킬랑 낙빠고
 Naging matigas ang iyong ulo
 나 킵 마띠 갓 썸기 용 빠로오

At ang una mong nilapitan
 앓 앙 웡~나 몽 닐 라피탄
 Ang iyong inang lumuluha
 앙 용 이 냥 무룰루하
 At ang tanong "anak ba't ka
 nagkaganyan?"
 앓 앙 타농 아낙 바't 카 간
 약
 At ang iyong mga mata'y biglang
 lumuha
 아 당리 용 망아 마타이 랑웅등중
 루무하
 Ng di mo napapansin
 냥 디 모 나 빠라빠관썬
 Pagsisisi at sa isip mo'y
 약 시시시 역 사 이썸 못잇
 Nalaman mong ika'y nagkamali
 아라아븐 몽 가이 낙 까말리
 Pagsisisi at sa isip mo'y
 약 시시시 역 사 이썸 못잇
 Nalaman mong ika'y nagkamali
 아라아븐 몽 가이 낙 까말리
 Pagsisisi at sa isip mo'y
 약 시시시 역 사 이썸 못잇
 Nalaman mong ika'y nagkamali
 아라아븐 몽 가이 낙 까말리
 아라아븐 몽 가이 낙 까말리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엄마와 아빠는 꿈이 이루어지는걸
 보았지
 우리의 꿈이 실현된 것이며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지
 넌 우리에게겐 너무도 소중한 아이
 였지
 네가 방긋 웃을 때마다 우린 기뻐
 했고
 네가 울 때마다 우린 네결을 떠나
 지 않았단다

아들아 넌 모르겠지
 아무리 먼 길도 갈 수 있다는것을

At ang payo nila'y sinuway mo
앗 앙 파요 닐라이 시누 윈 모
'Di mo man lang inisip na
디 모 만 랑 디이썸뿌 나

Ang kanilang ginagawa'y para sa
iyo
앙 칸 닐 랑 디 나가와요 빠라 싸
이요

Pagkat ang nais mo'y
각 깡 앙 나이스 모이
Masunod ang layaw mo
마수 뇷 앙 라이요 모
'Di mo sila pinapansin
디 모 실라 빼나판신

Nagdaan pa ang mga araw
낙다 안 파 앙 망아 아 라우

At ang landas mo'y naligaw
앗 앙 란 닷스 모 이 날리가우
Ikaw ay nalulong sa masamang
bisyo

이까우 아이 날룰롱 사 마사망 비쇼

우리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을
위해서는

신에 맹세코 너를 끝까지 돌봐주
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한다면 너를 위해서는
죽음도 마다하지 않을거라는것을..

계절이 여러번 바뀌고

벌써 많은 세월이 흘러 지나갔구
나

시간이 너무도 빨리 지나가 버린
거지 이제 너도 어느새 다 자라버
렸구나

그런데 무엇이 널 그렇게 변하게
했는지

넌 우리를 떠나고 싶어하는 것 같
구나

큰소리로 네마음을 말해보렴 우리
가 너에게 뭘 잘못했는지 말이야 ?

그런 너는 어느새 나쁜 길로 접어
들고말았구나

아들아 넌 지금 망설이고 있구나
무엇을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말
이야

넌 너무도 외로운거야 네 옆엔 친
구 하나 없는거지

아들아 넌 지금 후회의 눈물을 흘
리고있구나

우리가 너의 외로움을 덜어 주련
다

네가 가야 하는 곳이 어디이든지

우리는 항상 문을 열고 너를 기다
리고 있단다

When you were born into this world
Your mom and dad saw a dream fulfilled
Dream come true
The answer to their prayers

You were to them a special child
Gave 'em joy every time you smiled
Each time you cried
They're at your side to care
Child, you don't know

You'll never know how far they'd go
To give you all their love can give
To see you through and God it's true
They'd die for you, if they must,
to see you here
How many seasons came and went
So many years have now been spent
For time ran fast
And now at last you're strong
Now what has gotten over you
You seem to hate your parents too
Do speak out your mind
Why do you find them wrong

And now your path has gone astray
Child you ain't sure
what to do or say
You're so alone
No friends are on your side
And child you now break down in tears
Let them drive away your fears
Where must you go
Their arms stay open wide

간단히 소개하는 여수와 2012 여수세계 박람회

Date: May 12, 2012~ Aug. 12, 2012

Venue: Yeosu city, Korea (near Chungdeok Middle School)

Theme

"The Living Ocean and Coast" : Diversity of Resources and Sustainable Activities

Diversity of Resources and Sustainable Activities defines the guiding principle that should inform all future actions regarding our oceans. Only with sustainable use, in other words finding the balance between production and consumption, while preserving diversity of resources, species and culture, can the oceans and coasts continue to live.

Background of Theme : The Expo theme will help shed light on humankind's knowledge and advancements of technology concerning the ocean and coast and identify ways to resolve challenges facing the ocean. Since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ent into effect in 1993, the ocean has emerged as an important element in resolving various problems humankind faces, including those related to resources, food, space and the environment. However, industrial activities have damaged the marine ecosystem and subsequently reduced fishing stocks. As a result, the ocean faces severe crisis. A damaged marine ecosystem, global warming and natural disasters are not limited to a certain country or region, but are issues that have global implications. Thus, Expo 2012 Yeosu Korea themed on "The Living Ocean and Coast," will pave the way for reaffirming global effort to resolve such issues. Yeosu Expo's theme, "The Living Ocean and Coast," was divided into three sub-themes : Preser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Ocean and Coast, Cutting-edge Maritime Industries and Technologies, and Creative Marine Activities and Cooperation of Humankind. These subthemes have been further developed into 6 thematic groups, namely, Climate & Environment, Marine Creatures, Marine Industry &

Technology, Marine City and Marine Civilization, and Marine Arts, each of which will be demonstrated in the respective sub-theme pavilion.

Subthemes

Preser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ocean and coast

This subtheme aims to inspire a new level of coopera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o as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create a paradigm where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find a better balance. The last few decades have witnessed critical degradation of the earth and marine life caused by reckless use and excessive development of natural resources by man. Our economies and societies must break away from their current fossil fuel-based economies to minimize the damages to both people and the environment. Today, individuals, businesses, countries and the global community must realize that marine resources are limited and should not be subject to careless use. They are the fundamentals for the sound development of our future society, and people and ecosystems must be considered on the same level.

Cutting-edge maritime industries and technologies

This subtheme illustrates the progress and future prospects of marine technology, a new growth driver for the advancement of humankind. Countries are competing to become more competitive in marine-related industries and develop technologies to address issues related to resources and the changing environment. The discrete use of resources, which strikes a balance between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is only possible if based on advanced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Fostering marine industries will create added value and generate new jobs to transform sluggish industries into low cost, high efficiency structures.

Creative marine activities and cooperation of humankind

This subtheme intends to demonst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ceans and humankind through culture and art and promote the new ideals of the seatizen and seavilization.

An energetic mix of play and experience (edutainment) will trigger the

imagination and curiosity of attendees towards an unknown world, inspiring young boys and girls around the world to learn to love and appreciate the oceans. A wide collection of marine-related culture and arts, including poetry, novels, films, operas, musicals, plays and music will be exhibited at the Yeosu Expo.

Vision :

✔ A Vision for Restoring Life to the Sea and Coast

Sea level rise, the loss of biodiversity, acidification and pollution are only a few dangers threatening our seas and coasts. Restoring sustainable life to our marine environmen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entire global community.

✔ A Vision for Green Growth

The sea is our green engine for future growth. Its abundant resources and potential provide us important research into bio- and nanotechnology.

✔ A Vision for Cooperation

The sea offers a new frontier for global cooperation in order to realize harmonious coexistence with the marine environment.

Goals :

✔ People, oceans and coasts in harmony

touch of entertainment added to the valuable lessons provided about the oceans will help visitors better understand the seas and the importance of sustainable management of our waters. A new post-industrial model citizen, the Seatizen, will act as the bridge between the seas and humankind.

✔ Unforgettable experience

An inspiring and memorable experience is promised through the unique exhibitions and stories and eye-catching attractions. Anyone and everyone may visit Expo 2012 Yeosu Korea and share in this once-in-a-lifetime experience.

✔ A taste of the future

Advanced IT and marine technology come together to create multi-dimensional exhibitions, offering the experience of future marine technologies, virtual reality and the oceans of the past. Developing countries will have the chance to experience and share green high-tech marine technology, as well as being able to appreciate tomorrow's vision of the marine industry and science.

✔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moting a new level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peaceful use of the seas, the Yeosu Declaration will propose a post-Kyoto vision, and the Yeosu Project will help strengthen developing countries' capacities in dealing with the marine-related challenges facing them.

✔ Post-Expo uses

A thorough plan will be laid out for post-expo utilization of the expo facilities and on-going revitalization of Yeosu. Marine research facilities and organizations will continue to be welcomed into Yeosu so as to maintain it as an eco-friendly city of marine science and industry beyond the Expo.

Strategy

✔ Green Exposition

In the spirit of the theme of Expo 2012 Yeosu Korea, all preparations and events will leave a limited carbon footprint, and the Energy Park will become the test-bed for renewable energy. The entire Expo site will be constructed with environmentally-friendly methods and recycled materials to produce the least amount of waste possible.

✔ Ubiquitous Exposition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Expo facilities and exhibitions will be based on Korea's cutting-edge information technology. Visitors will have the chance to indulge in novel experiences, involving virtual and augmented reality. The Expo Digital Gallery, among others, will be representative of the ubiquitous Expo.

✔ Design Exposition

Every facility of the Yeosu Expo will be based on the most inspirational and contemporary designs. Major facilities, including the Korean Pavilion and the Thematic Pavilion, will be based on the winning designs of an international competition hosted for this very purpose. Prominent art directors will be invited to supervise the various cultural and arts events and advise on the creation of world class exhibi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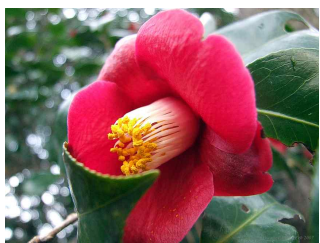
✓ Cultural Exposition

Cultural events will be major attractions at the Yeosu Expo. A flavor of culture and art will be found in official events, exhibition contents and seminars. Symbolic cultural products will be designed to promote the expo, and world famous cultural and arts performances will be an integral part of Yeosu's regional promotion.

여수시의 상징들(Symbols of Yeosu city)

1. City flower : Camellia

The flower language of



Camellia is "True Love". Because Camellia has sweet scent and plenty of honey. The yellow color of the flower symbolizes peace. The flower usually blooms late winter or early spring and lasts for a quite long time. This characteristics symbolize the tendency of persistence. People have used the seeds of Camellia for a lamp oil and hair shinning. The seeds of Camllia symbolize the

strong will and sprit of sacrifice

[Filipino] Pang lungsod na bulaklak: Camellia

Camellia, bulaklak na sumisimbolo ng “tunay na pag-ibig”. Dahil sa mabangong amoy at taglay na pulut-pukyutan. Ang dilaw nitong kulay ay sumisimbolo sa kapayapaan. Ito’y kadalasang namumukadkad tuwing katapusan ng taglamig o maagang tagsibol, at tumatagal ng mahabang panahon. Ang katangiang ito ay nagbabadya ng pagtitiyaga. Ginagamit ng mga tao ang buto upang maging langis ng lampara at pagpapakintab

ng buhok. Ang mga buto nito ay sumisimbolo sa matibay na paninindigan at pagsasakripisyo.

※ Answer to the questions related to the city flower

1. What is the city flower of Yeosu?
2. What is the flower language of Camellia?
3. What does the yellow color of the flower symbolize?
4. When does the flower bloom?
5. How long does the flower last?
6. What do the seeds of Camellia symbolize?

[Filipino] Mga katanungang may kinalaman sa panglungsod na bulaklak

1. Ano ang panglungsod na bulaklak ng Yeosu? Ang pambansang bulaklak ng Yeosu ay Camellia?
2. Ano ang pagkakakilanlang bulaklak ng Camellia? Ito ay mabango at maraming pulut-pukyutan?
3. Ano ang sinisimbolo ng dilaw na kulay ng bulaklak? Sumisimbolo ito ng kapayapaan?
4. Kalian namumukadkad ang bulaklak na ito? Namumukadkad ito tuwing katapusan ng taglamig o maagang tagsibol?
5. Hanggang kailan ang tumatagal ng bulaklak? Tumatagal ito ng mahabang panahon?
6. Ano ang sinisimbolo ng mga buto ng Camellia? Ang mga buto nito ay sumisimbolo ng matibay na paninindigan at pagsasakripisyo?

2. City Tree : Camellia

Camellia is one of ever-green broad-leaved tree. The tree is smelling sweet all year round and gets over cold weather easily. And the tree stays healthy against pollution. Yeosu citizens used to have this kind of nature which Camellia has. Most of the Korean people have always reminded of Camellia whenever they heard someone saying "Yeosu".



[Filipino]

Ang Camellia ay isa sa mga punong may malaking dahon na kulay berde. Ang punong ito ay may matamis na amoy sa buong taon at hanggang sa taglamig. Ang mga mamamayan ng Yeosu ay katulad din ng Camellia. Karamihan sa mga Koreano ay Yeosu agad ang naaalala kapag pinag-uusapan ang puno ng Camellia.

3. City Bird : Sea Gull

Sea gull has originally such a good nature of longevity. Also it has strong tendency against disease. Its sailing sound is somewhat lovely to hear and its feather is so soft and smooth to touch. The bird not only gives us such a friendly feeling but also has been a very good friend to lonely fisherman on the vast sea. It always seems to sing the praise of peace.



[Filipino] Panglungsod na ibon: Sea

Gull

Ang Sea Gull ay kilala dahil sa haba ng buhay nito. Mayroon din malakas na depensa ito mula sa anumang sakit. Magandang pakinggan ang mga sea gull habang sila'y namamayagbag sa kalangitan. Natatangi rin ang mahabang balahibo nito pagkat meron silang napakalambot na balahibo na wari'y napakasarap hawakan. Ang uri ng ibong ito ay di lang nagbibigay ng kasiyahan habang lumilipad. Ito ring nagpapasaya sa mga mangingisdang nag-iisa sa karagatan. At parang palaging kumakanta ito sa katiwasayan.

4. Mascot



Two turtles with hand in hand symbolize the striving citizens of Yeosu. They are all lined up in the same mind and though. The lovely and friendly images of children mean the onward growth and development of Yeosu city. Guki : Chinese letter of turtle (Gu) + English word of child (Kid) = Guki, Male turtle (right)

Guni : Chinese letter of turtle (Gu) +

English euphonic suffix for female(ny/nie) = Guni (left)

[Filipino]

Ang dalawang pagong na magkahawak-kamay ay sumasagisag sa mga nagpupunyaging mamamayan ng Yeosu. Lahat sila ay iisa ang iniisip at layunin. Ang kaibig-ibig at magiliw na imahe ng mga bata ay nangangahulugan ng patuloy na pagsulong at pag-unlad ng lungsod ng Yeosu.

Guki : letrang Intsik ng pagong (GU) + Ingles ng salita ng bata (Kid) = Guri, lalaking pagong

Guni : letrang Intsik ng pagong (GU) + Ingles ng euphonikong pandugtong para sa babae (ny/nie) = Guni (kaliwa)



5. Symbol Mark

Three circles symbolize the three elements of oriental philosophy (Heaven, Earth, and Humankind). A shape of islet in the middle of the circles represents the island, Odongdo in a modern sense of visual communication. You may catch visual-cognitive energy vividly running through the big circle into the small one, which signify the will of Yeosu city heading toward the World of Ocean Age.

[Filipino] Simbolong tatak

Ang tatlong bilog ay sumisimbolo sa tatlong elemento ng pilosopiya ng dakong Silangan (Langit, Lupa at Sangkatauhan)). Ang hugis ng isla na nasa gitna ng mga bilog ay kumakatawan sa isla, ang Odongdo sa modernong kaalaman ng komunikasyong biswal. Nakakakuha ka ng biswal na enerhiyang umaayon sa malaking bilog papuntang maliit na kumakatawan sa naisin ng bayan na Yeosu tungo sa daigdig ng panahon ng karagatan.

6. Character

The flower of Camellia has symbolized one of typical identities of Yeosu city. The red color symbolize lovely and lively spirit of Yeosu city. The five-petales of Camellia protect the androecia. Those androecia representing everyone of Yeosu citizens symbolize how well they are building harmony and solidarity among themselves.



[Filipino] Katangian

Ang bulaklak ng Camellia ay sumisimbulo sa isa sa mga tipikal na pagkakakilanlan ng lungsod Yeosu. Ang kulay pula ay sumisimbulo sa maganda at buhay na buhay na personalidad ng lungsod. Ang limang talulot ng Camellia ang nagpoprotekta sa Androecia. Ang mga Androecia ay sumasagisag sa bawat isang mamamayan ng Yeosu at sumisimbolo kung gaano sila bumubuo sa kaayusan at

pagkakaisa sa isa't isa.

Expo Symbol mark



Red symbolizes the living organisms on both land and in the sea.

Blue symbolizes the pure and clean ocean.

Green symbolizes the environment.

The white wave symbolizes the sea waves and seawater.

The entire frame expresses the harmony between Mother Earth, Humans, and the sea.

[Filipino] Simbolo ng Expong Marka

Ang pula ay sumisimbolo sa mga buhay na organismo sa lupa at dagat.

Ang asul ay sumisimbolo sa dalisay at malinis na karagatan.

Ang berde ay sumisimbolo sa kapaligiran/kalikasan.

Ang puti ay sumasagisag sa daloy ng tubog at karagatan.

Ang buong balangkas ay naghahayag ng kaayusan sa pagitan ng Inang Kalikasan, Sangkatauhan at ng Karagatan.

EXPO 로고송 | 바다가 기억하는 얘기

아이유 노래, 윤상 작곡, 박창학 작사

1절) 기억할 수도 없을 만큼 아주 오래된 일들까지

너는 알고 있지, 너는 지켜보고 있지

아무 것도 준 게 없는데, 끝없이 받기만 했는데

언제나 날 반겨 주는 그 미소는 변하지 않아

2절) 거추장스러운 옷들도, 무겁기만 한 그 신발도

던져 버리라고, 전부 벗어 버리라고

언젠가 그랬던 것처럼 마음껏 뒹굴어 보라고

언제나 날 반겨 주는 그 손짓은 변하지 않아

후렴) 바다가 기억하는 얘기, 멀고 먼 과거의 꿈

셀 수 없이 많은 낮과 밤을 묵묵히 지켜 본 푸른 눈빛

파도가 나에게 들려 주는 얘기, 멀고 먼 미래의 꿈
이제 가만히 두 눈을 감고 그 소릴 듣는다, 귀를 기울인다

수많은 기억의 노래, 끝없는 생명의 노래
영원히 멈추지 않는 소리
언제까지라도

[Stories told by the sea]

All of the memories we've left behind, from beyond the times we
reminisce,
You've always been there to share it, been there to share the moments
with.
Even through worst and the harshest times, you're the one giving me
hopes and dreams
Smiling for me with wide open arms, never turning away from my side

The troublesome clothes that hold you back, the heavy hearted minds
that weigh you down
Lift all the weight off your shoulders, cast all the troubles far away.
Enjoying the freedom and zest you give, as you always had me search
in life
Beckoning me with wide open arms, never turning away from my side

Stories told by the heart of the sea, dreams that flow from the past
The vivid deep blue eyes watching over, through all the endless nights
and days
hmm~Stories told by the rise of the waves, dreams that lead to the
future
Closing my eyes, I listen to the story, listen to your dreams

Songs of boundless memories, songs of endless life
Sweet whispers and sounds that'll never stop
Forever and ever, hmm~